

ISSN 2733-564X

부부가족상담연구

제2권 제1호 (2021년 5월)

KACFCS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부부가족상담연구

제2권 제1호 (2021년 5월)

목 차

□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연구 동향 분석 양외금 · 정민자 1
□ 온라인 기반 인간중심 미술치료 집단상담이 부모와 함께 참여한 학교 부적응 중학생의 자존감, 내적 통제성에 미치는 효과 김혜영 15
□ 이마고 관계치료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이민영 29
□ 중년후기 나이듦의 인식에 관한 문헌연구 김신영 · 김영은 41
□ 내면아이치료의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이윤재 57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연구 동향 분석

양 외 금* 정 민 자**

부산가족상담 울산대학교
교육연구소

본 연구의 목적은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부 대상 성공적인 노화의 연구 문헌을 분석하여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추후 노인 부부 상담이나 교육 등에 성공적 노화의 어떤 요인들이 검토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분석 내용은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 이후를 시작으로 지난 20년 동안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부 대상의 성공적 노화 주제어를 검색한 결과 관련 연구 중 최종 30편의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동향 분석하였다. 출판연도 및 출처, 관련 요인,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연구 주제 분석하여 내용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발표연도는 2004년 첫 등장으로 2010년 5편, 2012년 7편, 2014년 5편, 2019년 2편 그 외 연도에는 각각 1편씩 연구 발표되었다.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유형 분석결과는 복수 응답 처리하여 총 64개로 나타났다. 그 결과, 긍정적 심리적 요인(9개, 29.7%), 가족 요인(18개, 28.1%), 인구통계학적 요인(9개, 14.1%), 사회·환경적 요인으로(8개, 12.5%), 행동·신체적 요인으로 모두(7개 10.9%), 부정적 심리적 요인으로 모두(3개, 4.7%)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연구 방법과 상세연구 방법으로 양적 연구 방법(83.3%)과 회귀분석(51.7%)이 제일 높은 빈도수가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 연구 대상자로 노년기(78.1%)가 가장 많으며 중년기(12.5%), 청년기(6.3%), 장년기(3.1%) 순이었다. 연구 주제 분석결과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의 연구 주제 동향을 살펴보면, 성공적 노화 규명에 대한 주제는 총 21개로 높은 빈도(70%)를 나타내었고 성공적 노화 방안이 총 9개로 30%의 빈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부부 교육이나 황혼이혼 등에 대한 전문 부부 상담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함과 동시에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연구의 주요 시사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연구, 동향 분석

* 제1저자 : 양외금, 부산가족상담교육연구소 소장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민자, 울산대학교 아동가정 복지학과, (44610)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Tel : 052-259-1488, E-mail : agnesnoel@hanmail.net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의·과학 발전으로 인해 기대 수명 증가, 젊은 층의 결혼 기피 및 출산율의 저하 등으로 고령 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7년 65세 이상인 인구가 7%를 넘기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 이루어진 고령자 통계에서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9%에 해당하는 고령 사회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점점 가속화되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이후 2067년에 이르러서는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 46.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통계청, 2019).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의 34.7%를 차지하는 등 황혼이혼이 20년 사이 2배 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늘고 있어 사회적 이슈다(통계청, 2020).

이제 우리는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노인 인구들이 긴 시간 노인으로 보내야 하는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노인 또는 노화라는 단어는 경제적 가난, 인지적 저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 신체적 질병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과 연결되어왔다. 많은 이들은 노인은 지루하고, 이해가 느리고, 몸이 약해 병들었고, 가난하다는 편견이 있었다(권금주, 2015; 최경숙, 송하나, 2017). 하지만 실제로는 꾸준한 건강관리를 하여 건강 위험 요소들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활발한 관계를 맺으며 지적 활동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노인들도 많다(김미령, 2013; 임희규, 2012).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해 많은 어르신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연령주의(ageism)를 인종주의 또는 성차별 등과 같은 맥락에서 비판하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최경숙, 송하나, 2017).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노인과 노화를 보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동배, 2008; 송기영, 2018). 이를 통해 도입된 대표적 개념이 바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이다. 성공적 노화란, 노년기에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안녕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권금주, 2015; 이경란, 2019). 즉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신체적 및 심리적 노화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당면한 상황 또는 환경을 적절하게 통제함으로 젊었을 때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활기차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Rowe & K ahn, 1998). 이런 점에서 성공적 노화는 건강한 노후(healthy aging), 만족스러운 노후(aging well), 또는 생산적 노후(productive aging)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조명희, 2014).

노인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며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보낸다는 의미를 지닌 성공적 노화에 관한 관심 증대는 다양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노인 인구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권효숙, 2011; 정태연, 윤가현, 2018; 조명희, 2014).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의미 정립(고대선, 원영신, 2005; 신상수, 2015; 정태연, 윤가현, 2018),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에 대한 탐색(김경연, 정여진, 2006; 지혜은, 박경숙, 2018), 성공적 노화 수준의 측정(김동배, 2008; 손의성, 2011; 안정신, 강인, 김윤정, 2009), 성공적 노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적 함의(변미경, 현혜진, 박선정, 최은영, 2017; 이창수, 김현국, 정연수, 2013) 등이 대표적 연구이다.

우리나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와 같은 여러

주제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의 노인들에 있어 부부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권금주, 2015; 이신영, 2006; 한창목, 2019). 특히 사별이나 이혼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와 부부관계가 더 원만한 노인들이 훨씬 더 만족스럽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유진, 2015; 남석인, 김준표, 이다지, 신지민, 2015; 임안나, 정영옥, 지술현, 송노원, 2014; 정여진, 안정신, 2012; 주수산나, 전혜정, 2014; 최봄이, 전혜정, 주수산나, 2016; 하상희, 2018).

특히 노인 부부들의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보다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유지한 경우가 많아서 부부간의 상호의존성이 다른 가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Henry, Berg, Smith, & Florsheim, 2007). 따라서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수준의 이해를 위해서는 부부를 모두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성공적 노화에 있어 부부라는 울타리가 영향력 있는 요인이며 면밀하게 탐색해 보아야 할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연구의 동향이 분석되어 진 바 있지만,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성공적 노화 관련 연구 동향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최근 제시된 동향 분석 연구 대부분은 10년을 분석 단위로 삼고 있어 더욱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데 다소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지난 20년 동안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게재된 부부 대상의 성공적 노화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연구 동향을 분석했던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분석 준거를 설

정하였다. 다음으로 학위 논문과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정식 게재된 학술지 중, 부부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성공적 노화 관련 논문들을 선별하고, 설정된 분석 준거를 중심으로 연구의 동향을 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방 법

분석대상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부부를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를 주제로 수행된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기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에 포함될 대상 논문들을 선정하였다. 국내 중요 자료검색 데이터 베이스인 국가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내 전자 저널인 RISS, KISS, KCI, 구글, 스칼라 등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에 발간된 논문들을 전자 검색하였다. 전자 검색에는 키워드 검색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키워드는 성공적 노화, 부부, 노화이다. 연구 분석대상의 포함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분석대상을 선별하였다. 첫째, 2000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지난 20년 동안 국내에서 발행된 연구를 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주제어 및 본문 내용을 성공적 노화, 부부로 한정했고, 연구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셋째, 주요 키워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도 내용상 부부의 성공적 노화 또는 성공적 노화의 조건 및 척도 문항에 부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키워드가 포함된 경우에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조건에 만족하는 40편의 연구를 1차로 선정하였다. 1차로 선정된 연구의 제목과 초록을 모두 검토하고, 더욱더 세밀한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의 참고 문헌을 일일이 검토하여 키워드 검색을 통해 발견되지 않은 연구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10편을 제외하여 30편의 연구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틀

이 연구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준거를 설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이 활용했던 분석 준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주제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성공적 노화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분석 준거의 설정은 크게 성공적 노화와 노년기 부부의 두 가지 범주에서 이루어졌던 동향 연구를 검색하여 해당 논문들에서 선정한 분석 준거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분석 준거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효숙(2011)은 성공적 노화를 제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국내 학술 논문 58편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학문 분야, 연구 목적, 연구 방법, 구성요소 및 유형을 준거로 삼아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명희(2014)는 2002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출간된 성공적 노화 관련 학술지 논문 86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성공적 노화 관련 연구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로는 발행 연도, 학문 분야,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연구 주제의 5가지 항목을 사용하였다. 이옥진과 박현식(2016)의 연구에서는 2000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게재된 베이비붐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학술지 124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논문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모두 포함되었으며, 이 연구에서의 분석 준거는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의 의미와 구성요인, 연구 방법, 연구 주제, 그리고 연구 대상이었다. 김영희와 정면숙(2018)은 '성공적 노화'를 제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국내 학술 논문 58 편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학문 분야, 연구 목적, 연구 방법, 구성요소 및 유형을 준거로 삼아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경혜, 차승은, 그리고 민주홍(2018)은 한국 노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가족에 대한 논문 87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동향의 분석 준거로 학문 분야, 연구 방법론, 그리고 연구 주제를 설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서 노년기 부부, 그리고 성공적 노화 연구에 대한 동향을 분석했던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 분석 준거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추출하였다.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출된 주요 분석 준거들은 발행 연도, 학문 분야, 연구 주제에 대한 개념화 및 정의 혹은 구성요소 탐색, 관련 요인이나 영향 요인, 연구 방법, 연구 대상, 그리고 연구 주제의 7 가지이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의 경우 최근 다양한

표 1. 선행 연구 동향 분석 준거

분석 준거	권효숙 (2011)	조명희 (2014)	이옥진, 박현식 (2016)	김영희, 정면숙 (2018)	한경혜, 차승은, 민주홍 (2018)
발행 연도	○	○		○	
학문 분야(계재지 유형)	○	○		○	○
개념 및 정의, 구성요소	○		○		
관련(영향) 요인			○	○	
연구방법	○	○	○	○	○
연구 대상		○	○		
연구 주제	○	○	○	○	○

표 2.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연구 동향 분석 준거

분석 준거	하위 준거의 내용
출판연도 및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연도: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0년 단위 · 출처: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소속 학교,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공식 명칭
관련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심리적 요인 · 부정적 심리적 요인 · 행동/신체적 요인 · 사회/환경적 요인 · 가족 요인 · 인구통계학적 요인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연구 · 질적 연구 · 혼합연구
연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기 · 장년기 · 중년기 · 노년기
연구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적 노화 규명 · 성공적 노화 방안

연구가 이루어지고 척도 개발 연구 등이 수행되면서 개념에 대한 정의 및 구성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의 연구 동향의 분석 틀로 대상 연구의 발행 연도 및 출처, 관련 요인이나 영향요인, 연구 방법, 연구 대상, 그리고 연구 주제의 5가지를 선정하였다.

분석 준거 설정 결과

분석 준거의 설정을 위해 선행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성공적 노화 연구 동향 분석 준거를 다음의 5 가지 범주로 확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표 2에 제시하였다.

결과

발표연도 및 출처 분석결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성공적 노화 관련 연구의 지난 20년 동안의 발표연도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서서

표 3.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관련 연구 발표연도 분포(2020년 1월)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편수	0	0	0	0	1	1	1	1	1	1	
%	0.0	0.0	0.0	0.0	3.3	3.3	3.3	3.3	3.3	3.3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30 (100.0)
편수	5	1	7	1	5	1	0	3	0	2	
%	16.7	3.3	23.3	3.3	16.7	3.3	0.0	10.0	0.0	6.7	

표 4.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관련 연구 수록 학술지

학술지명	빈도	퍼센트(%)
노인복지연구	3	14.3
뇌 교육 연구	1	4.8
복지 상담 교육 연구	1	4.8
젠더와 문화	1	4.8
한국 가족 복지학	2	9.5
한국 노년학	5	23.8
한국 노년학회	2	9.5
한국 노인복지학회	1	4.8
한국농촌간호학회	1	4.8
한국 보건 간호학회	1	4.8
한국심리학회지	1	4.8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	4.8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	4.8
전체	21	100.0

성공적 노화 연구는 많으나, 부부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04년에 들어서서야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4년 처음으로 1편이 등장한 이후, 2009년까지 매년 1편씩이 발표되다가, 2010년부터 증감을 거듭하다가, 2012년 가장 많은 7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후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성공적 노화 연구는 점차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관련 연구들이 발표된 출처를 살펴본 결과, 30편의 논문 중 9편(30%)은 학위 논문이었고, 21편(70%)이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였다. 학위 논문 중에서는 1편이 박사학위 논문이었으며 나머지 8편은 석사학위 논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성공적 노화 연구의 출처를 분석하여 이 주제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알아보기 위해 21편의 학술지 연구만을 대상으로 그 분포를 분석하였다.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관련 연구 수록 학술지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학술지는 한국 노년학과 노인복지 연구 순으로 차례로 빈도 5(23.8%)와 빈도 3(14.3%)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빈

도순으로 나열하면 한국 가족 복지학, 한국 노년학회가 빈도 2(9.5%)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뒤에 뇌 교육 연구, 복지 상담 교육 연구, 젠더와 문화, 한국 노인복지학회, 한국농촌간호학회, 한국 보건 간호학회, 한국 심리학회지,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한국융합학회논문지에서 모두 빈도 1(4.8%)로 나타났다.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관련 연구 수록 학술지 분포는 표 4와 같다.

관련 요인 분석 결과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와 관련되는 요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요인들로는 크게 긍정적인 심리적 요인,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 행동/신체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가족 요인, 인구 사회학적 요인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하나의 연구에서 여러 관련 요인들을 함께 살펴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복수 응답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30편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성공적 노화 관련 요인들은 모두 64건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관련 요인 분포

관련 요인	빈도	%
긍정적 심리적 요인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자기 통제	19
	자기 초월 가치	29.7
부정적 심리적 요인	심리적 안녕감	
	우울 불안	3
행동/신체적 요인	건강증진 행위	
	운동 수준	7
사회/환경적 요인	친구 관계	
	사회 활동 수준	8
가족 요인	자녀와의 관계	
	손·자녀와의 관계	
	친인척과의 관계	18
인구통계학적 요인	부부관계	
	경제 상태 건강 상태	9
전체		100.0

먼저, 부부 대상으로 하는 성공적 노화 연구에서, 이들의 성공적 노화와 관련되는 요인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긍정적 심리적 요인이었으며, 모두 19건(29.7%)이었다. 긍정적 심리적 요인에는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자기 통제, 자기 초월 가치,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변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가족 요인이었으며 모두 18건(28.1%)이었다. 가족 요인에는 자녀와의 관계, 손·자녀와의 관계, 친인척 등 가족들과의 관계, 부부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긍정적 심리적 요인과 가족 요인이 분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빈도순으로 나열하면 첫 번째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모두 9건(14.1%)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경제 상태, 건강 상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모두 8건(12.5%)으로 변인으로는 친구 관계, 사회 활동 수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행동·신체적 요인으로 모두 7건(10.9%)으로 변인으로 건강증진행위, 운동 수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성공적 노화와 관련되는 요인 중 가장 낮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부정적 심리적 요인으로 모두 3건(4.7%)으로 부정적 심리적 요인의 변인으로는 우울, 불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 방법 분석결과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연구 방법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양적 연구 방법으로 총 25건(83.3%)의 매우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다음으로 질적 연구 3건(10%), 혼합 연구 2건(6.7%)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연구 방법 분포는 표 6과 같다.

표 6.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연구 방법 분포

연구 방법	빈도	%
양적 연구	25	83.3
질적 연구	3	10.0
혼합 연구	2	6.7
전체	30	100.0

표 7. 연구 방법 상세분포

상세연구 방법	빈도	%
차이검증	5	17.2
회귀분석	15	51.7
매개 분석	8	27.6
요인 분석	1	3.4
전체	29	100.0

상세연구 방법을 분석하면 표 7과같이 회귀분석(15건, 51.7%)과 매개 분석(8건, 27.6%)이 제일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연구 방법으로는 차이 검증(5건, 17.2%), 요인 분석(1건,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연구 대상분포를 살펴보면, 과반수를 차지한 연구 대상은 노년기로 총 25건(78.1%)의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중년기 4건(12.5%)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년기 2건(6.3%), 장년기 1건(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분석결과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연구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으며 복수 응답처리를 포함하여 총 30편의 연구에서 32건의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주제 분석결과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의 연구 주제 분석결과는 표 9와 같으며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성공적 노화 규명에 대한 주제는 총 21건으

표 8.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연구 대상분포

상세연구 방법	빈도	%
청년기	2	6.3
장년기	1	3.1
중년기	4	12.5
노년기	25	78.1
전체	32	100.0

표 9.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연구 주제 분포

연구 주제	빈도	%
성공적 노화 규명	21	70.0
성공적 노화 방안	9	30.0
전체	30	100.0

로 높은 빈도(70%)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성공적 노화 방안이 총 9건으로 30%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논 의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관한 관심도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증가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 여러 분야에서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황혼이혼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성공적 노화 연구 동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추후 노인 부부 상담이나 교육 및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연구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20년 동안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게재된 부부 대상의 성공적 노화 관련 연구 조건에 맞는 30편의 연구를 동향 분석하였다.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했던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분석 준거를 설정하고, 부부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성공적 노화 관련 논문들을 선별하여, 설정된 분석 준거를 중심으로 연구의 동향을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논문 발표연도 및 출처, 관련 요인,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연구 내용, 연구 주제를 파악하여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연구들에 대하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도별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관련 학문 분야 연구 동향을 보면, 2000년대에 들어 성공

적 노화 연구는 많으나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 연구는 2004년 처음 1편 시작으로 2009년까지 매년 1편씩 발표되었으나, 2010년부터 증감을 거듭하다가, 2012년 가장 많은 7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후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성공적 노화 연구는 점차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부부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감소 추세에 있다. 다만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들이 노년학과 노인복지뿐 아니라 가족 복지학, 보건 간호학, 심리학 분야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만하다. 다만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고 부부관계나 가족학을 주제로 한 학술지보다는 노년학 학술지에 대다수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관련 요인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긍정적 심리요인과 가족 요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행동, 신체적 요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연구에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제외하고 가족 요인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노인 부부의 상호 의존성이 다른 가족 구성원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생각해볼 때 성공적인 부부 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권금주, 2015; 이신영, 2006; 한창묵, 2019)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다만 기존의 연구에서 손·자녀와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등과 부부관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부부관계에 관한 사례연구나 질적 연구를 통해서 부부관계에서의 하위변인들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사회 활동과 가족관계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한계로 여겨진다.

셋째, 연구 방법, 사용된 척도, 연구 대상에 따른 동향을 살펴본 결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는 대다수 양적 연구와 회귀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채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양적 연구와 회귀분석의 연구 방법은 성공적 노화의 요인을 규명하는 것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성공적 노화의 방안을 도출하기에는 부족한 방식으로 보이고, 특히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양적 연구들의 한계점을 질적 연구나 다양한 집단 간의 비교분석 방식을 통해서 보완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넷째, 부부 대상 성공적 노화의 연구 주제 동향을 살펴보면 성공적 노화의 요인을 찾는 연구가 성공적 노화의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보다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 방법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공적 노화를 달성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들은 성공적 노화의 원인보다는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례연구와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풍부한 사례연구와 질적 연구를 위해서는 노인 심리상담, 노년 부부에 대한 심리치료 자료는 물론이거니와 부부관계를 생애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생애주기별 임상 자료들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들이 제시되어야지만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들이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의 이흔 통계(통계청, 2021)를 보면 황혼이 흔이 점차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공적 노화에서 부부관계가 중요함에도 현실적으로는 관계가 해체되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기존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들이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좀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요인 분석의 연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구 방법과 도구를 활용한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성공적 노화를 지원하고 예방하는 부부생활의 문제 해결 능력향상과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개최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의 측면이 아니라 생애사적 관점에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측면으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논문 중에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표본이 적다. 이 때문에 성공적 노화에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규명하거나 성공적 부부관계의 방안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둘째, 연구 방법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기존 연구논문을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연구 시기, 연구 대상이 각기 달라 연구의 내용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성공적 노화를 살펴본 연구가 많아진다면 시계열에 따라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셋째, 본 연구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성공적 노화에 관한 동향 연구이기 때문에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하지 않은 연구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비교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두 연구를 비교하는 것 역시 성공적 노화에 있어 부부관계 중요성을 파악하고 살펴보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비

교분석 연구 역시 추후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중에서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들만 따로 분석함으로써 노년 부부의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또한 기존의 연구들을 동향 분석함에 따라 기존 연구들의 미흡한 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한계점을 서술함으로써 추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참 고 문 헌

- 강유진 (2015). 부부 단독가구 노인의 가사분담, 평등감, 의사소통이 부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2), 361-374.
- 고대선, 원영신 (2005).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4, 413-424.
- 권금주 (2015). 미래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림고령사회연구*, 3(1), 1-15.
- 권효숙 (2011). 성공적 노화 연구의 학문적 동향. *뇌교육연구*, 특별호, 23-50.
- 김경연, 정여진 (2006). 건강 및 경제 수준에 따른 집단별 성공적 노화의 요소 탐색. *노인복지연구*, 34, 31-54.
- 김동배 (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211-231.
- 김미령 (2013). 준고령자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의 삶의 만족도 영향 및 노후준비의 매개 효과. *노인복지연구*, 62, 257-287.
- 김영희, 정면숙 (2018). 노년기 부부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인문사회* 21, 9(3), 171-183.
- 남석인, 김준표, 이다지, 신지민 (2015). 노인의 노화 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유무에 따른 비교와 부부간 대화 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70, 169-196.
- 변미경, 현혜진, 박선정, 최은영 (2017). 웰다잉 프로그램이 노인의 삶의 의미, 자기효능감 및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0), 413-422.
- 손의성 (2011).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전략으로서의 선택·최적화·보상(SOC)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1(2), 381-400.
- 송기영 (2018). 노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 효과. *노인복지연구*, 73(1), 469-503.
- 신상수 (2015). 노인의 성공적 노화 담론 연구.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14(-), 41-73.
- 안정신, 강인, 김윤정 (2009).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225-245.
- 이경란 (2019). 고령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학습몰입 및 성공적 노화의 관계.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신영 (2006). 국내의 성공적 노화 연구에 관한 일 고찰. *복지행정논총*, 16(1), 117-136.
- 이옥진, 박현식 (2016). 신노년문화 창출을 위한 성공적 노화 연구동향 탐색: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학술대회논문집*, 1-18.
- 이창수, 김현국, 정연수 (2013).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 모델에 대한 비평과 향후 과제. *한국웰니스학회지*, 8(4), 1-11.
- 임안나, 정영우, 지술현, 송노원 (2014). 유배우자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경제적 사회참여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

- 행정학보, 28(3), 291-312.
- 임희규 (2012). 중년과 노년의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3), 85-99.
- 정여진, 안정신 (2012). 노인의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에 대한 자녀애착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1), 185-206.
- 정태연, 윤가현 (2018). 『韓國老年學』의 심리학 분야 연구동향. **한국노년학**, 38(3), 767-782.
- 조명희 (2014).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동향-학술지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3(2), 231-249.
- 주수산나, 전혜정 (2014). 노인 부부의 부부관계만족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노인복지연구**, 64, 207-233.
- 지혜은, 박경숙 (2018). 성공적 노화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 비교. **사회보장연구**, 34(2), 209-237.
- 최경숙, 송하나 (2010). **발달심리학-전생애: 아동·청소년·성인**. 펴주: 교문사.
- 최봄이, 전혜정, 주수산나 (2016). 은퇴 노인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삶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비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2), 77-96.
- 통계청 (2019). **2019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20). **한국의 사회 동향 2020**.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21). **사회통계**. 대전: 통계청.
- 하상희 (2018). 남녀 노인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7(1), 29-41.
- 한경혜, 차승은, 민주홍 (2018). 한국 노년가족학 연구의 최근 10년 연구경향과 향후 과제. **한국노년학회**, 38(3), 667-683.
- 한창묵 (2019). 신중년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국정관리연구**, 14(2), 37-62.
- Henry, N. J., Berg, C. A., Smith, T. W., & Florsheim, P. (2007). Positive and negative characteristics of marital interaction and their association with marital satisfaction in middle-aged and older couples. *Psychology and Aging*, 22(3), 428-441.
- Rowe, J. W., & 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원고 접수일 : 2021년 03월 25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1년 05월 13일

게재 확정일 : 2021년 05월 29일

Analysis of the Trend of Studies of Successful Aging for Married Couples

Yang, Oe-Geum

Jung, Min-Ja

Busan Family Counselling
& Education Institute

Uls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search literature of successful aging for couples at a time when twilight divorce is increasing, identify research trends, and find out what factors of successful aging can be considered in the future. The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 2000s when studies on successful aging began in earnest, and after searching for successful aging topics for couples officially published over the past 20 years, the final 30 studi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years of publication, sources, related factors, research methods, subjects, and topics to analyze the trend of contents. The year of the announcement was the first of its kind in 2004, with five in 2010 and seven in 2012. Five films were published in 2014 and two in 2019, respectively. The type analysis results for factors associated with successful aging resulted in a total of 64 responses processed. Consequently, there were nine positive psychological factors (29.7%) 18 family factors (28.1%), nine demographic factors (14.1%), eight social/environmental factors (12.5%), seven behavioral/physical factors (10.9%), and three negative psychological factors (4.7%). Also, as the methods of research on successful aging for married couples and the detailed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83.3%) and regression analysis (51.7%)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Most subjects of studies of successful aging were in the old age (78.1%), followed by middle age (12.5%), youth (6.3%), and late middle age (3.1%).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opics, to examine the trend of the research topic of successful aging for married couples, 21 studies had a topic on the investigation of successful aging at a high frequency of 70%, and nine had a topic on the measures for successful aging at a frequency of 30%.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epth access to marital education or professional marital counseling for twilight divorce, etc. was required, while discussing the main implications of successful aging studies for couple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word : Married couples, study of successful aging, trend analysis

온라인 기반 인간중심 미술치료 집단상담이 부모와 함께 참여한 학교 부적응 중학생의 자존감, 내적 통제성에 미치는 효과

김 혜 영*

마음건강 연구소

본 연구는 미술치료 집단상담이 학교 부적응 중학생의 자존감, 내적 통제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학교 부적응 중학1-2년생 46가족(통제집단 23가족, 실험집단 23가족)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서울시 00구 00가족 상담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독립변수로 실험 처치(집단상담)를, 종속변수로 자존감 및 내적 통제성을 설정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부모와 함께 참여한 중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모집된 참여자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에만 주 2회, 회기당 100분씩 총 15회기의 집단상담을 줌(zoom) 활용 비대면으로 실시하였고 종속표본 t 검증을 통해 통제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 집단상담에 참여한 학교 부적응 중학생의 자존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술치료 집단상담에 참여한 학교 부적응 중학생의 내적통제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미술치료 집단상담을 통해 부적응 청소년과 부모 간 어렵게 시도한 대화와 미술 활동으로 서로의 감추었던 밀 마음을 알아차림으로써 인지적인 추론 또는 감정 상태에 있어서 자신감을 준 결과이며, 자신이 스스로 운명을 지배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들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속적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미술치료 집단상담, 자존감, 내적통제성, 부모와 함께 참여한 학교부적응 중학생, 줌(zoom) 활용 비대면상담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혜영, 마음건강 연구소 대표, (06544)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31동 302호,
Tel : 02-3477-5932, E-mail : couns13@gmail.com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식습득, 인격 형성을 한다. 학교는 각기 다른 가정환경에서 사회화된 다른 모습의 청소년들을 집단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사회화를 시도하는 독특한 체제와 구조를 가지는 사회이며(한인영, 홍순혜, 김혜란, 김기환, 2000), 새로운 규범과 규칙, 인간관계 양식, 역할 등을 학습하기 때문이다(백현우, 박언하, 조미숙, 2011).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위해서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집단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건강한 사회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이 학교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가치관이나 사고 및 적응 행동을 유지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황이 될 때 이를 학교 부적응(maladjustment)이라고 한다(중앙사회복지연구회, 1997).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 부적응의 개인적인 특성은 주로 성별이나 연령, 학교의 성적 수준, 경제적 수준, 가족 형태, 부모의 학력과 직업, 비행 경험, 어머니의 취업 유무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우영숙, 홍순혜, 이문자, 정지인, 현인화, 1997), 자존심 손상과 열등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 행동 청소년과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가출 및 잣은 결석으로 이어져 결국 중도탈락 또는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심의보, 2015; 이선희, 2013). 학교 부적응과 연관된 가족 환경적 요인의 경우 부모의 갈등, 부모와의 문제적 의사소통, 부정적 양육 태도, 가정폭력 및 학대 경험, 성적 학대 및 폭력 경험, 부모 간 폭력 등으로 나타난다(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거부적이고 일관성 없는 부적절한 양육 태도가 청소년에게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하며 결손가정, 빈곤 가정, 부모·형제간의 갈등 심화, 가족 결속력의 상실 등 가족의 위기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보고 되었다(간호우, 박원재, 2005; 이해경, 2009). 반면, 억제 변인으로는 부모 애착,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

의사소통, 가족 지지 등이 있다(이은주, 2011).

이같이 많은 연구는 부적응과 관련된 심리 정서적 요인 중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영향을 미치는 가족이 요인이며, 부모의 학력 수준, 부모의 직업의 유무,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고, 이들이 학교 부적응을 유발하거나 억제하는 요인이 됨을 지속해서 제시해 왔다. 즉 학교 부적응의 문제는 학생의 개인 성향이나 가정환경의 문제 만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이다. 학교부적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적지 않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실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입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험적 연구의 고찰을 통해 학교 부적응을 미리 감지하고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은 저마다의 마음의 '상처'와 복잡한 사고, 감정들을 외부와 소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정현선, 2003), 심리적으로도 자아개념이 부실하고 분명한 정체성이 없기(현연화, 1998) 때문에, 스스로 안정된 자아를 되찾고 '자기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낮은 자존감과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지 못하는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타인과 유의미한 관계 형성을 촉진하여 개인의 성장을 비롯하여 발달에 도움을 주고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돋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양한 대상으로 심리치료, 교육, 재활 등의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미술치료는 이들에게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돋고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도움이 될 수 있다(Rubin,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함께 참여한 부적응 중1-2년 학생들 대상으로 그들이 겪는 심리적 체험과정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미술치료 집단상담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존감과 내적 통제성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하여 그들의 성장과 발달을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인간중심 미술치료

미술치료는 주관적 현상인 창작 활동을 치료 과정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정신-역동적, 계슈탈트적, 인간 중심적, 행동주의적, 발달적 접근 등을 적용한 다양한 미술치료가 있다. 하지만 이론이 모든 내담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어떤 내담자가 어떠한 어려움을 호소하느냐에 따라 접근 방법은 다르게 선택되어야 한다(공마리아 외, 2004).

본 연구자가 선택한 인간 중심적 미술치료는 내담자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알아차린 후 상처받은 자아 개념을 회복시켜주고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보며, 특히 학교 부적응 학생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지니고 있었던 설움이나 억울함 등을 과감하게 표현했을 때. 공감적 이해 및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제시된다면 내담자는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실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즉 경험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자신을 신뢰하게 되며, 지속적인 성장에의 의지를 갖추게 되면서 자기실현을 이루려는 사람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을 격려하는 것이 인간 중심치료의 기본 목표라고 할 수 있다(한국미술치료학회 편, 2000).

미술치료 집단상담

미술치료 집단상담은 미술을 매체로 하여 생활 문제해결에 필요한 태도와 자기 관리능력을 습득하고 대인관계기술을 향상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첫째, 자발적으로 많은 경험을 표현하게 한다. 둘째,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이 미술재료에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기에 자기표출에 주저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셋째,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자기표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넷째, 집단원 사이의 개인차와 보편성을 쉽게 인식하게 된다(정여주, 2003).

치료 과정은 도입, 활동,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첫 번째 도입 부분은 친밀과 편안한 분위를 조성하는 과정으로 호흡법이나 음악을 사용하기도 한다. 두 번째 활동 시간에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개인마다 미술 활동 시간의 차이가 있기에 시간제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 세 번째 토론 부분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집단원과 작품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집단이 신뢰롭고 안정되어 있을수록 작품 안에서 더 많은 정보와 느낌을 가질 수 있다. 토론 시 주의할 점은 작품의 진단이나 분석을 삼가야 하며, 그 작품에 대해 어떻게 느끼세요? 그것을 만들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어떤 의미를 줍니까? 등으로 집단원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하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한국미술치료학회 편, 2000).

자존감

자존감은 개인이 스스로에게 갖는 태도 속에서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이다. 미술 활동이 자신의 장점이나 능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주제일 경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자존감 향상과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 집단을 구성한 개인은 그 집단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서로 간 작품을 보완해 주고 돋는 과정을 거치면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존감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리하여 부모와 함께 참여한 청소년은 미술치료 집단상담을 통해 내부와 외부의 경계망을 극복하고 상호 간의 협동 작업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높은 자긍심을 갖게 된다(양영숙, 2002).

특히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율적인 선택이나 결정, 개인적인 책임, 진취성 등이 부족한데, 미술치료 집단상담에 참여하면서 미술 매체와 색

상의 선택,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 자발적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활동을 경험하면서 능동적이며 자율적인 태도로 변화된다(전미향, 1997).

내적 통제성

내적 통제성이란 자신의 행동에 수반된 보상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일반적 기대 또는 신념을 말한다. 즉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를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관련지어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성향이다(전경표, 2001). 청소년기는 집단 소속의 감정이 강하고 우리라는 의식이 강해지는 시기여서(이수현, 2002), 집단활동을 통하여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는 타인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며 해결해 나가는지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러한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유대감 및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이타주의적 협동심을 배양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또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민감하기에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 소속된 후 인정받고 싶어 한다. 미술치료 집단상담 시 청소년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또래들의 반응을 수용하는 경험을 갖게 되며, 서로의 작품을 보완해 주거나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 자신도 남을 돋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에 자신의 존재, 역할, 인과응보를 경험 함으로써 내적 통제성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최은희, 1999).

미술치료 집단상담과 자존감 및 내적 통제성

본 연구는 미술치료 집단상담 후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자존감, 내적 통제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미술치료 집단상담이 자존

감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하여,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미술치료 집단상담의 효과를 제시한 바 있다. 김동은과 전순영(2020)은 2018년 3월-2019년 1월에 걸쳐 총 11회기로 구성, 1회는 50분으로 진행, 경기도 G시 소재의 중학교 2학년 16명(실험집단 8명과 통제집단 8명)을 대상으로 경제 수준이 중하, 하에 속한 편모, 편부, 조부의 보살핌을 받는 가정환경이었으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해가 심하며 교사들과 잣은 충동 및 또래들과 잣은 다툼 등으로 담임교사가 상담교사에게 의뢰한 학생들로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문제 행동을 보일 확률이 높아서 푸드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를 했다. 정신분석이론 근거로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의 무의식 갈등, 욕구, 충동을 일깨워주고 공격성과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 정서적 안정 부여, 자신을 되돌아보며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측정 도구는 정서적 안정감 척도(한태영, 1998)와 자존감 척도(최보기, 전귀영, 1993) 사용,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심민정(2003)도 부적응 중학생 20명을 대상, 미술치료 집단상담 실시 후,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 결과를 얻었으며, 김혜경(2003)은 부적응 중학생 18명을 대상, 자존감과 사회성의 향상, 김수진(2001) 역시 부적응 청소년 8명 대상, 자존감 향상의 효과, 전미향(1997)도 중·고교생 80명 대상, 미술치료 집단상담 실시 후, 자존감 및 사회 적응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에 기반하여, 미술치료 집단상담 실시 후 부모와 함께 참여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둘째로, 미술치료 집단상담이 내적 통제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는 김현자(2006)가 배우자의 사별, 이혼으로 인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포

함한 한부모 가족 대상, 10명에게 현실요법을 적용한 미술치료 집단상담을 경기도 소재 종합장애인 복지관에서 주 1-2회, 60분-90분씩, 총 16회기 실시하여 자아존중감 및 내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부모를 포함한 청소년 가족의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더욱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수현(2002)도 청소년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8명의 지체부자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집단상담 실시 결과 내적 통제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미술치료 집단상담 실시 후 부모와 함께 참여한 학교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내적 통제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상술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미술치료 집단상담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미술치료 집단상담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내적 통제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00구에 위치한 000가족상담센터에서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재학 중인 학교 부적응 중학생 1-2학년 학생과 함께 참여한 부모를 대상으로 줌(ZOOM)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부모 중 1인과 학생 1인이 포함된 46가족(통제집단원 23가족, 실험집단원 23가족)이며, 표 1에 제시한다.

측정 도구

자존감 척도

자존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를 사용했으며, 이 검사는 스스로에 대한 자아상 중 자존감을 측정하는 척도로써 총 11문항으로 되었다. Rosenberg의 질문지는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감정 상태나 자아개념을 파악하면서, 1점에서 6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77 이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분포

	성별				전체 가족 참가자	
	남학생 포함 가족		여학생 포함 가족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실험집단	학생 7명 + 부모 7명	학생 12명 + 부모 12명	학생 1명 + 부모 1명	학생 3명 + 부모 3명	학생 23명 + 부모 23명	
	학생 8명 + 부모 8명	학생 8명 + 부모 8명	학생 1명 + 부모 1명	학생 6명 + 부모 6명	학생 23명 + 부모 23명	
통제집단	학생 15명 + 부모 15명	학생 20명 + 부모 20명	학생 2명 + 부모 2명	학생 9명 + 부모 9명	학생 46명 + 부모 46명	

내적 통제성 척도

내적 통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Rotter(1966)가 개발한 내적 통제성 척도를 차재호, 공정자와 김철수(1973)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했으며, 전체 21문항으로 이루어졌고, 내적 통제성과 외적 통제성을 나타내는 2개의 문항이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개의 문항 중 1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21 문항 중 6개는 허구척도이며,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65 이었다.

연구 절차

본 연구자는 2020년 6월01일부터 6월30일까지 서울시 00구에 위치한 000가족상담센터에서 부모와 함께 참여할 학교부적응 중1-2년생을 공개 모집하여 23가족을 통제집단원으로 선발하였고, 23가족을 실험집단원으로 선발한 후 46가족 전체에게 2020년 9월04일 미술치료 집단상담을 시작하기 1주일 전에 학생과 부모의 이메일을 통하여 줌(zoom)상담에 대한

설명과 집단상담 시의 규칙, 진행 방법,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등의 윤리적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으며, 자존감, 내적 통제성에 관한 질문지는 학생들에게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후 통제집단원 23가족은 별도의 실험 처치를 하지 않았으며, 실험집단원 23가족에게는 주 2회, 1회당 100분씩 총 15회기에 걸쳐 2020년 9월 04일부터 2020년 11월 04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한 카메라를 멀리 두고 1명의 학생과 그의 부모 1명을 한 조로 둑어서 줌(zoom)을 통하여 000센터에서 접속. 본 연구자가 직접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04일에 46가족 중 학생 전원에게만 사전검사와 동일한 질문지를 역시 매일을 통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미술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본 연구자가 실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표 2와 같다.

표 2. 미술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단계	회기	주제	활동 내용	목표	효과
초기 (도입)	1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치료 • 집단상담이란? • 사전검사(자존감, 내적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치료에 대한 이해 • 집단상담 전의 참가자의 심리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참여 동기 증가
	2	자신의 이름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간 자신의 이름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들을 생각하여 자유롭게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인한 자존감 수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간 서먹한 분위기 줄이기 -그림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3	가장 못생긴 못난이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 • 작품을 소개하며 서로를 알아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일 크게 부각 된 부정적인 경험에서의 자존감의 위치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출로 감정정화 -관계의 탐색
	4	과거, 현재, 미래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 • 타 가족과의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되어온 자존감 수준/통제력 수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정체성 알기 -가족 이해
	5	행복했던 기억, 억울했던 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로 올라가면서 행복했던 것 • 아픔의 기억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와 최저의 자존감/통제력 들여다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 탐색, 자신 이해 -감정의 표출

단계	회기	주제	활동 내용	목표	효과
탐색 (활동)	6	현실에 있는 자신의 모습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어려운 현실 세계를 점토로 표현 • 그 위에 비닐을 덮은 후 역경을 이기고 우뚝서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겪고 있는 아픔의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나의 통제력/자존감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현실 이해 - 역경 탈출
	7	에너지 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내면 감정을 신나게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경 극복의 의지 들여다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 감정 표출 - 자신감, 성취감 증진
	8	동물 가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에 대한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에게서 얻게 될 자존감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이해 - 관계의 질 개선
	9	내 마음 들여다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숨겨진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맘에 안에 있는 통제성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탐색, 자기 발견
	10	남이 보는 나와 진짜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두 모습 들여다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존감의 정도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상 형성
실행 (활동)	11	타인의 사랑/나만의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과 나의 사랑법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사랑법을 알아차림으로 자존감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탐색, 자존감 증진, 이타심, 행복감, 사회성 향상
	12	씨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씨앗이 되어 발전하는 모습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를 통제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의 욕구와 의미를 인식
	13	미래의 내 모습 (그림자와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그림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에 따라 변화되는 나의 모습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인 자아상 발견
	14	함께 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원끼리 주제를 정하고 공동 작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자신을 통제하면서도 협력으로 좋은 결과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 적응력과 타인 조망 능력 향상
종결 (토론)	15	친구에게 선물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라 점토로 선물을 만들어 가족간 서로 교환하기. • 사후검사 (자존감, 내적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으로서 얻은 내 자존감/통제성의 힘 • 변화된 자존감/통제성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소중함과 자긍심

본 연구자가 비대면 온라인 줌(ZOOM)을 이용한 미술치료 집단상담 진행 시 경험한 긍정적인 사항과 부정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긍정적인 경험으로는 물리적 접근 용이성, 편의성, 심리적 편안함, 상담자의 공감적 반응과 경청, 코로나 전염 위험성의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부정적인 경험으로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한계, 정서적 교감의 부족, 내담자의 감정이입과 집중의 어려움이 다소 발생하였기에 후속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결 과

미술치료 집단상담 집단원의 선발

본 연구에서는 집단상담 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 전에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학생 통제 집단원 23명과 실험 집단원 23명간의 동질성을 알아보고자 독립표본 t-검증 후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에 대한 동질성 검증

	통제집단학생 (<i>n</i> =23)	실험집단학생 (<i>n</i> =23)	<i>t</i>
	<i>M</i> (<i>SD</i>)	<i>M</i> (<i>SD</i>)	
자존감	40.17(10.99)	41.40(8.77)	-.43
내적통제성	8.78(2.35)	8.33(3.69)	.50

표 3의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한 *t*검증 결과, 학생 간 자존감 및 내적 통제성의 2가지 변인 전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집단상담 학생 간 사전의 통제, 실험집단은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자존감과 내적 통제성에 대한 학생간의 미술치료 집단상담의 효과 분석

자존감 및 내적 통제성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에서 통제집단과 미술치료 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 표본 *t*-검증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의 결과, 자존감 및 내적 통제성에서,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 사이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실험집단의 자존감 점수는 사전과 사후에서 사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기에(*t*=-2.521, *p* <.01) 미술치료 집단상담 후 부모와 함께 참여한 학교 부적응 학생의 자존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집단의 내적 통제성의 점수는 사전과 사후 검사를 비교하였을 때 사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기에(*t*=-2.322, *p* <.05) 미술치료 집단상담 후 부모와 함께 참여한 학교 부적응 학생의 내적 통제성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 중 1인과 함께 참여한 학교 부적응 중학생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경험을 이해하도록 돋기 위한 미술치료를 통한 집단상담이 자존감 및 내적 통제성의 긍정적인 변화를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표 4.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자존감 및 내적 통제성 점수의 사전과 사후 평균과 *t*값

	<i>N</i>	학생의 사전검사	학생의 사후검사	<i>t</i>
		<i>M</i> (<i>SD</i>)	<i>M</i> (<i>SD</i>)	
자존감	통제집단	23	40.17(10.981)	38.48(7.962) 1.061
	실험집단	23	41.40(8.772)	46.84(8.573) -2.521**
내적통제성	통제집단	23	8.78(2.363)	8.61(2.621) .4021
	실험집단	23	8.08(3.822)	10.84(3.413) -2.322*

p* <.05, *p* <.01

를 위해 연구자는 2020년 6월 01일 서울시 00구에 있는 000가족 상담센터에서 부모 중 1인과 함께 참여한 학교 부적응 중1-2년생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23가족을 통제 집단원으로 선별하였고, 23가족을 실험 집단원으로 선별하였다. 집단상담 실시 전에 46가족에 메일로 안내 및 소개, 작성 요령, 작성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이후 학생들에게만 자존감 및 내적 통제성에 관한 질문지를 집단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회당 100분씩 총 15회기에 걸쳐 2020년 9월 04일부터 2020년 11월 04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줌(zoom)을 통하여 000센터에서 본 연구자가 직접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통제 집단원 23가족은 별도의 실험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실험 집단원 23가족에게는 주 2회,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20년 1월 04일에 46가족 중 학생에게만 사전검사와 동일한 질문지로 이메일을 통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상담이 학교 부적응 중학생의 자존감 향상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자존감이 의미 있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미향, 김수진과 심민정(1997, 2001, 2003)의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이었음을 제시한다. 또한, 집단상담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내적 통제성 또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이수현(2002)의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한 개입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치료 효과는 미술치료 집단상담이 학교 부적응 학생과 부모 간 어렵게 시도한 대화와 미술 활동으로 서로의 감추었던 속마음을 알아차림으로써 인지적인 추론 또는 감정 상태에 있어서 자신감을 준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자신이 스스로 운명을 지배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들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속적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상담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부모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제미영(2014)의 경우 개인 심리적 요인과 학교 환경 요인의 영향과 더불어 부모 양육 태도(과잉간섭), 가정폭력, 부모갈등, 부모의 언어적 통제 등의 가족 환경 요인 또한 주요한 요인임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가족 환경 요인과 관련하여 문동규(2011)의 연구에서는 가족으로 부터의 직접적인 학대 경험(1.327)이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갈등(.724), 부모자녀간의 갈등(.357)과 같은 간접적인 가족환경의 순서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남재성(2011)의 연구에서는 형제나 친구 등 타인과의 비교가(34%), 부모의 무시하는 태도(21.1%), 과도한 꾸지람을 들었던 경험(17.5%) 등, 정서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 비율이 높게 나타났기에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적절한 언어 사용과 훈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내용은 본 연구자가 실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복수의 부모들이 본인들이 자녀에게 일상적으로 쏟아냈던 폭언으로 아이들이 많이 주눅 들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회기가 거듭되면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보고한 바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둘째,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동은과 전순영(2020)의 푸드아트 집단미술치료, 김은주와 김갑숙(2015), 박성환(2004)의 연구에서도 집단 미술치료는 긍정적 정서 경험으로 자신에 대한 생각의 폭도 넓힐 수 있었고, 집단 간 상호작용을 유도하였고, 자존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한 결과는 이같이 기존에 제시된 집단미술치료 접근의 치료적 효과를 재확인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셋째, 인간중심 미술치료프로그램을 활용한 다른

사례연구는 물론이고(김서안, 권양란, 2016; 김인선, 2009; 노현미, 최외선, 박인전, 2010), 보다 깊이 있게 치료과정을 살펴본 연구(윤라미, 박유미, 2019; 전영숙, 제석봉, 2005)에서도 인간 중심치료에서 치료자로부터 공감적 이해 및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에 힘을 얻어 내담자는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실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제시하고 있다.. 자신을 신뢰하게 되며, 지속적인 성장에의 의지를 가지게 되면서 자기실현을 위해 자신을 제어 할 수가 있었기에 내적 통제성의 향상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인간중심 미술치료를 통해 내적통제성의 향상을 알아보고자 했던 본 연구의 의도와도 일치하였다. 인간중심 미술치료를 통한 여중생의 친구 만들기 사례연구(노현미, 2020)의 경우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중생이 자신의 삶에서 태도 변화, 경험 인지도의 이완, 자기 문제 및 사람과 맺는 관계의 변화 등을 조금씩 경험해 가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한 연구의 결과는 내담자 스스로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노력으로 내면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내적 통제성의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통한 제안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Covid-19로 인한 상황에서 진행된 비대면 미술치료에 관한 연구들이 아직 많지 않아 참조할 수 있는 연구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비대면 미술치료 집단상담프로그램이 현장에서 더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로 통계적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추후 경험적 질적 연구 부분을 적용한 학교 부적응 청소년과 가족의 미술치료 집단상담 사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같은 개입과정에 대한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남진숙, 신지현, 2020). 셋째, 본 연구는 줌(ZOOM)으로 진행함으로써 언어적 상호작용의 한계, 정서적인 교감의 부족, 내담자의 감정이입과 집중의 어려

움이 다소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모들의 협조 부족으로 학생들의 사전 사후검사만으로 만족해야 했기에 후속프로그램부터는 시간을 두고 개별 접근을 통한 협조 요청 후 부모들의 사전 사후검사를 하여 변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비대면 상담에 대한 윤리와 규정은 청소년 사이버 상담(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의 지침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서울시 00구에 위치한 000기족 상담센터에서 모집한 부모 중 1인과 함께 참여하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으로 한정되었기에 연구의 결과를 학교 부적응 전체 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의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개입과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변인들은 모두 자기 보고식 연구법으로 측정하였으므로 객관성 등 자기 보고식 측정이 갖는 문제점과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한 미술치료 집단상담은 15회기 개입을 통한 사전 사후검사 결과만을 비교하였기에 추수 상담 등을 통한 상담 효과의 지속에 대한 검증이 포함되지 않았다.

참 고 문 헌

- 간호옥, 박완재 (2005). 학교 부적응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가정환경적요인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2(3), 5-23.
- 공마리아, 김갑숙, 박경규, 이근매, 임호찬, 전순영, 전영숙, 정현희 등 (2004). *미술치료개론*, 대구: 동아문화사.
- 김동은, 전순영 (2020). 푸드아트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7(3), 513-531.

- 김서안, 권양란 (2016). 인간중심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3(2), 555-583.
- 김수진 (2001). 집단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김갑숙 (2015).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1(2), 179-204.
- 김은하, 이은설, 조예지 (2021). 대학상담센터 내담자들의 비대면 심리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22(2), 85-110.
- 김인선 (2009).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인간중심 미술치료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2), 1-31.
-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6, 31-59.
- 김혜경 (2003). 집단미술치료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재성 (2011).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강원지역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5(1), 199-226.
- 남진숙, 신지현 (2020). 모-자 미술치료가 맞벌이 가정 외동 자녀의 모-자 의사소통과 또래 관계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7(6), 1187-1212.
- 노현미 (2020). 인간중심 미술치료를 통한 여중생의 친구 만들기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27(5), 1037-1057.
- 노현미, 최외선, 박인전 (2010). 치료놀이를 병행한 인간중심적 집단미술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사회적 적응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7(4), 767-792.
- 문동규 (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련된 변인의 메타회귀분석: 유발 및 억제 변인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환 (2004). 집단미술치료가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현옥, 박언하, 조미숙 (2011). *아동복지론*. 서울: 광문각.
- 심민정 (2003). 집단미술치료가 중학생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의보 (2015). 학교 부적응에 관련된 변인의 메타분석: 유발변인과 억제변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영숙 (2002). 집단미술치료가 부적응 중학생의 적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영숙, 홍순혜, 이문자, 정지인, 현연화 (1997).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실태와 학교사회사업서비스 육구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1), 47-69.
- 윤라미, 박윤미 (2019).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성장과 또래관계에 대한 인간중심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26(2), 293-325.
- 이선희 (2013).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청소년 사례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현 (2002).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에 거주하는 자체부자유 청소년의 내적통제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11). 부모애착과 청소년 학교부적응 문제연구에 대한 기독교상담. 계명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현, 김장희 (2020). 청소년의 희망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상담학 연구*, 21(4), 247-278.
- 이혜경 (200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경표 (2001). **현실요법 집단상담이 내적 통제성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 최보가 (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이 부모-청소년 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1(3), 157-173.
- 전미향 (1997).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영숙, 제석봉 (2005). 인간중심이론을 적용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2(1), 235-253.
- 정여주 (2003).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현선 (2003). 정보화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으로서의 미디어교육포럼발표자료집**(pp. 11-13). 서울: 대안교육센터.
- 중앙사회복지연구회 (1997). **사회복지와 불평등.** 서울: 중앙사회복지연구회.
-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 (1973). 내외통제척도 작성.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연구노트**, 2(19), 263-271.
- 최은희 (1999). **청소년의 내외 통제성과 도덕적 판단에 관한 연구: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훈, 이정윤 (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6(1), 21-47.
- 한국미술치료학회 편 (2000).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 동아문화사.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편 (2012).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교육특강.** 서울: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인영, 홍순혜, 김혜란, 김기환 (2000). **학교와 사회복지.** 서울: 학문사.
- 한태영 (1998). **Big five 성격특성검사지.** 한국적성연구소.
- 현연화 (1998). **중·고등학교 복교생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loom, M. V. (1980). *Adolescent parental separation.* New York: Gorder Press.
- Boszormenyi-Nagy, I., & Spark, G.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Jersey: Princeton Univ. Press.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and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1-28.
- Rubin, J. (1987). *Approaches to art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Rubin, J. (2002). 위기를 중재하는 치료로서의 미술.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학회 창립3주년 기념학술대회논문집**(pp. 82-98). 경기도: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지개발원.

원 고 접 수 일 : 2021년 03월 26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1년 05월 15일

게 재 확 정 일 : 2021년 05월 29일

Effects of Online-Based Human-Centered Art Therapy Group Counseling on Self-Esteem and Internal Control

Kim, Hye-Young

Heart Health Research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how group counseling using art therapy affects self-esteem and internal control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have school life maladjustment issues. In this study, group counseling utilizing art therapy was provided to 46 families (23 families in a control group and 23 families in an 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and the families 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increased self-esteem. Second, the level of their internal control was increased. Lastly, it was discussed that group counseling using art therapy provided confidence in cognitive reasoning or emotional states by recognizing each other's hidden underlying mind through having difficult conversations and art activities between maladaptive adolescents and parents.

Keyword : Group counseling using art therapy, self-Esteem, internal control, school life maladjustment,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with parents, online counseling using zoom.

이마고 관계치료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이 민 영*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이마고 관계치료는 관계에서의 치유와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 심리치료 기법으로, 국내 다양한 상담 장면에서 부부갈등과 가족의 위기를 다루기 위한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이마고 관계치료의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함을 통해 관련 연구의 흐름과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마고 관계치료에 대한 국내연구는 2004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총 32편의 학술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발행연도별, 연구 방법별, 연구대상별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마고 관계치료에 관한 연구는 2004년 학술지 논문 2편을 시작으로 꾸준히 발행되었고, 학술지 논문이 56.3%, 학위논문이 43.8%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방법별로는 사례연구가 46.9%, 성과연구 37.5%, 문헌연구 12.5%, 과정연구 3.1%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별로는 부부 53.1%, 개인 18.8%, 개인과 부부가 혼합된 형태 9.4%, 가족 6.3%로 나타났다. 논의를 통해 이마고 관계치료의 치료적 요인들을 밝히고 경험적인 연구와 상담자 대상의 연구와 연구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이마고 관계치료, 연구동향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민영,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임상심리사,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임상심리실.
Tel : 02-570-8178, E-mail : mana579@seoul.go.kr

2020년 전체 혼인 건수와 이혼율을 살펴보면, 혼인건수가 21만 4천 건으로 전년대비 10.7% 감소하였고, 2020년 이혼 건수는 10만 7천 건으로 전년에 비해 4000건, 3.9% 감소하였다(통계청, 2021). 혼인 건수에 비해 이혼 건수가 덜 감소한 것은 좋은 징후로 볼 수 있으나, 최근 5년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혼인율은 감소하고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이혼율의 상승은 더 많은 가족들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정교영, 신희천, 2007)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고, 이런 사회적인 화두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의 일환으로 다양한 가족 치료 이론과 개입이 국내에서 꾸준히 소개 및 연구가 되어왔다. 죄빛내, 죄우정과 죄연실(2018)의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2016년까지 학술지에서 ‘커플치료, 부부치료’의 키워드로 검색되는 논문의 수가 651편에 달하는데, 커플치료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주요한 치료이론과 기법은 통합적 접근, 사티어의 경험적 접근, 보웬의 다세대적 접근, 이마고 관계치료로 나타났음을 보고된 바 있다. 이들 이론들 중 전통적인 부부/가족 치료적 접근을 제외하면 이마고 관계치료가 국내 상담 장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치료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치료에 기반을 둔 전통 커플치료에 비해 용어 사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치료에서 단편적인 기법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많으나 주요 모델로는 사용되는 번도가 부족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루어진 바가 없다.

이마고 관계치료(Imago Relationship Therapy)는 1980년 중반 Harville Hendrix 박사와 Helen La Kelly Hunt 박사에 의해 커플 치료의 형태로 발전되었다(Brown, 2009). Luquet(2004)은 이마고 부부관계치료는 서구의 심리학적 사고와 동양의 영적 전통과 신화, 그리고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통합한 것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이마고 관계치료가 유연성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마고 관계치료는 내

적치료와 관계치료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 도구이자 전인적인 치료모델이다(김덕수, 2011). 이마고 관계치료의 기본 가정은 우리는 에너지이고, 모든 다른 형태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고통은 연결이 끊어질 때 발생하고, 부부가 서로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고 재 연결되면 다시 온전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이에, 개인적인 치유에 그치는 개인적 패러다임(individual paradigm)의 시각에서 벗어나 두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적 패러다임(relational paradigm)으로 내담자를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Luquet & Hannah, 2011). 이를 위해 이마고 대화법이라는 도구를 기본으로 하여 커플의 의사소통을 증가시키고, 발달이 저해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이마고 관계치료는 IITI(Imago International Training Institute)에 소속된 다양한 국적의 25명의 교수진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임상적인 실효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국제공인 이마고 부부치료사(CIT: Certified Imago Therapist)가 190여명이 배출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꾸준히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이는 임상현장에서 이마고 관계치료가 활발히 사용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흐름과 같이 대다수의 연구가 임상현장에서 이마고 대화법을 적용한 것이 가장 많았다(문정화, 2020; 박진수, 최광현, 2020; 이현주, 2016; 이효경, 2009; 최혜숙, 권현용, 2015) 또한, 단기 이마고 관계치료프로그램의 적용 타당성과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송정아, 2005, 2006)와 기존 커플치료 모델들과 비교를 통해 이마고 관계치료의 타월성을 소개한 연구(김덕수, 2011)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이마고 관계치료 연구의 결과물이 다양하게 축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밝히는 작업이 중요한 부분이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이마고 관계치료관련 학위논문과 학회지 게재논문들의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논문의 연도별 동향과 주요 논문들의 내용과 주요 구성요소인 연구대상, 연구방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마고 관계치료의 최근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특징과 동향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 대상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마고 관계치료 논문의 발행 연도별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이마고 관계치료 논문의 연구 방법의 경향은 어떠한가?

셋째, 이마고 관계치료 논문의 연구 대상은 어떠한가?

방 법

논문 검색 및 수집과정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이마고 관계치료와 관련된 총 3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연구물 선정을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이마고 부부치료', '이마고 부부상담',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이마고 기법'을 주요어로 검색하였다. 또한, 동일 연구물이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중복된 경우 학술지 논문으로 선정하였고, 종교적 관점으로 이마고 관계치료를 연구한 논문은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위 논문 14편과 학술지 16편의 논문을 합하여 총 32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평정절차 및 분류범주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 대상 논문을 분류하기 위해 한국가족치료학회지 게재논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고안된 서진환(2008)의 분류틀을 기본으로 하여 분류범주를 설정하였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연구 제목과 초록의 내용을 보고 이마고 관계치료와 관련이 없는 논문은 제외하고 최종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둘째, 연구자가 초록과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을 코딩하였다. 셋째, 분류된 범주와 범주명을 정하고 연구동향 논문을 쓴 상담전공 박사의 검토를 받은 후 확정하였다. 최종 분류범주는 표 1과 같다.

분류범주는 기초사항,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기초사항은 금선미와 심혜진(2019)의 분류를 사용하여 제목, 출판연도, 학술지/학위논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주제는 선행연구(서진환, 2008)의 분류를 참고하여 전체 논문을 임상적 치료연구와 비치료연구로 유목화하고, 치료연구는 성과연구, 과정연구, 사례연로 분류하고, 비치료연구는 경험연구와 문헌연구로 분류하여 각 하위범주별 연구의 주요 특징을 제시하였다.

표 1. 분류범주

분류범주	세부사항
기초사항	제목, 출판연도, 학술지/학위논문
연구주제	치료 연구 성과연구, 과정연구, 사례연구 비치료연구 경험연구, 문헌연구
연구대상	부부, 가족, 개인
연구방법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표 2. 분석틀 (서진환, 2008)

(임상적) 치료연구	성과 연구
	과정 연구
	사례연구
경험 연구	실태/현황 파악
	이론/모델검증, 관련변인 간 관계검증
	척도 개발 및 검증
비 치료 연구	현상 발견이나 탐색 및 이론 개발
	연구동향 분석
	쟁점논의(문화, 여성, 윤리)
문화 연구	모델/기법 소개와 설명
	관점과 이론에 대한 심층이해
	실패/현황 파악

선행연구의 분석틀은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은 금 선미과 심혜진(2019)의 분류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개인, 부부, 가족, 개인/부부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4.0 통계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이마고 관계치료의 연구 경향을 파악하였다.

결과

발행 연도별 논문 수

연구결과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 발표된 논문은 총 37편이고, 연도별 논문 수는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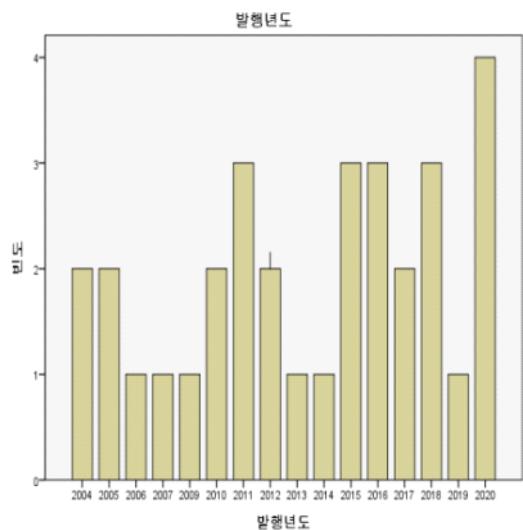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발행 논문 수

과 같다. 2004년 학술지 2편 발행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꾸준히 논문 전체 논문 중 학위논문은 43.8%, 학술지는 43.8로 학술지 발행비중이 조금 높았다. 학위논문은 2007년 1편을 시작으로 꾸준히 1편씩 발행되고 있다. 학술지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2편씩이 발행된 이후로 매년 꾸준히 1편씩 발행되다 2020년 3편으로 늘어났다.

연구 방법 동향

이ما고 관계치료의 연구 방법은 성과연구, 과정 연구, 사례연구, 경험연구, 문헌연구로 나누었다. 5개의 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가 32편 중 15편(46.9%)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성과연구가 12편(37.5%), 문헌연구가 4편(12.5%)로 나타났다. 반면, 과정연구가 1편(3.1%)으로 연구 빈도가 낮고 경험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 방법별 연구동향은 표 3과 같다.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연구는 열다섯 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

표 3. 연구 방법별 연구동향

연구방법	발행연도																			편수 (%)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성과연구	1	1	1	0	1	0	2	0	1	0	2	1	0	1	1	0	12	(37.5)		
과정연구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3.1)		
사례연구	0	0	0	0	0	2	0	2	0	1	1	2	2	1	0	4	15	(46.9)		
문헌연구	1	1	0	1	0	0	1	0	0	0	0	0	0	0	0	0	4	(12.5)		
전체	2	2	1	1	1	2	3	2	1	1	3	3	2	3	1	4	32	(100)		

었다. 논문의 대상자는 1사례에서 20쌍까지 다양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마고 관계치료에서는 안전한 환경에서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경험을 통해 정서적 친밀감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 상처나 미해결과제로 남아 현재 관계경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조아라와 오제은(2014)은 미혼여성이 남자친구 선택에서 '이마고 매치 성향'을 나타냄을 확인하고, 이런 영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본인과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도 이성 관계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이 여전히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이마고 관계치료에는 싱글스 워크숍(Singles Workshop: Keeping the Love You Find), 커플스 워크숍(Getting The Love Want)이 있는데, 변복수와 오제은(2010)은 커플스 워크숍(당신이 원하는 사랑 만들기)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변화경험을 살펴본 결과 어린 시절의 상처 탐색 및 인식과정과 상처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부모의 부부관계 패턴에서 본인 부부관계 패턴에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인식하며, 배우자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되는 경험과 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옥선(2010)의 경우 이마고 부부관계치료의 이론과 실제를 수강한 과정 생을 대상으로 변

화경험을 살펴보았는데, 이혼의 주요 요인(동기)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부부관계 인식변화에 따른 강렬한 내적 경험을 통해 배우자의 이미지를 재구성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권형진(2020)은 이마고 관계치료를 10회기 동안 커플에게 실시한 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신체 접촉욕구가 높아졌으며, 원가족 내 어린 시절 상처 확인을 통해 숨은 욕구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이마고 대화법 통해 갈등이 부부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행동수정요청을 통해 부부가 재연결되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했다. 변은주(2017)는 이혼 위기에 있는 커플을 대상으로 이마고 관계치료의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치료의 기법적인 요인으로 대화를 위한 준비(심호흡, 대화 요청하기, 역할 준비시키기), 이마고 대화법의 구조(반영, 인정, 공감)가 나타났고, 치료사의 역할에는 안전감과 신뢰감 제공(비난 즉각 개입, 경청을 통한 질문과 요약, 포기하지 않고 버텨주기), 대화 깊어지도록 조력하기, 부부가 연결되도록 돋기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를 통해 부부가 변화된 내용으로는 원가족의 영향력을 자각하고, 배우자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생겼으며, 서로에 대한 애듯함이 되살아났다고 보고되었

다. 김창호(2020)는 기본적인 기술인 이마고 대화법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탈삼각관계경험을 하고, 커플간의 지속적인 수용과 연결을 경험 하며, 자기 성찰이 높아지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동시에 원가족에 대한 정서 해소도 일어났다고 보고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치료기법을 통합하여 이마고 대화법을 활용한 연구(문정화, 2020; 박진수, 최광현, 2020; 이현주, 2016; 이효경, 2009; 최혜숙, 권현용, 2015)가 있었다.

둘째, 이마고 관계치료의 성과연구를 중심으로 기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두 열 두 편의 논문이 있다. 이마고 관계치료는 기본적인 기술로 이마고 대화법(반영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이 있고, 다섯가지 과정에 따라 대화법과 연습문제가 구성된다. 송정아(2005)는 이런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6회기 프로그램 결과 전반적인 결혼만족도와 부부관계만족도, 배우자 만족도, 자신에 대한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고했다. 또한, 이마고 관계치료이론과 다양한 이론적인 개념을 혼합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들이 많았는데, 심수명(2004)은 이마고 관계치료와 의사소통방법, 갈등해결방법, 분노조절, 부부의 성, 원가족관계 등의 다양한 이론적인 개념을 혼합하여 본인만의 10회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한 결과 결혼만족도가 상승하고 친밀감 및 융통성, 성만족도, 의사소통수준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이마고 대화를 다양한 치료와 접목한 연구들이 많았는데, 전소원(2013)은 음악치료에 이마고 대화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갈등대처방식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한유진과 오소정(2015)은 이마고 기법과 모래놀이치료를 통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시절의 탐색과 상처를 경험하고 내면의 상처와 현실과의 연결을 통해 패턴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향상되

었다고 하였다. 또한, 김예슬과 최명선(2018)은 불안정애착아동으로 분류된 아동의 가족으로 부모·자녀와 부부관계에서 문제를 보이는 가족을 대상으로 이마고 관계치료 6회기와 가족미술치료 12회기를 병행 실시한 결과 불안정애착아동의 애착 안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불안정애착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 전반적인 결혼만족도가 향상되고, 의사소통과 갈등대처방식이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심수명(2004)과 남현우(2019)의 연구에서는 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부부 성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셋째, 이마고 관계치료의 치료과정에 대해 알아본 연구는 정정화와 윤가현(2018)의 논문으로, 심한 부부 갈등으로 상담소에 내원한 부부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복으로 도달하는 심리적 변화 및 치유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넷째, 이마고 관계치료의 비치료적 문헌연구는 4편이 있다. 오제은(2005)은 이마고 관계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부부 개개인의 어린 시절의 발달단계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상처 치료여부의 중요성에 알아보기 위해 이마고 커플관계치료와 내면아이 치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따라 상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커플관계치료에서 내면아이 치료모델을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였다. 또한, 김덕수(2011)는 이마고 관계치료를 훈련하고 실시함으로서 탁월한 상담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이마고 관계치료가 대화의 패턴, 성품, 인간관계태도를 변화시키는 전인적 치료모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부각자의 미해결과제가 현재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부 상호간의 관계치료를 통해 내면의 근본 상처를 치료하고, 지속적인 치료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부부는 이마고

매치(Imago Match)로 만나고, 부부는 서로를 치유 회복하고 성장하게 하는 치료사로 상호 관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부 상호간의 관계패턴에 주목함으로써 관계의 회복을 도와준다고 설명하였다. 그 외에 이마고 관계치료를 교회 내에 적용하기 위해 소개한 연구가 두 편이었다(이명희, 2007; 최은경, 2004).

연구 대상별 분포

이마고 관계치료의 문헌연구를 제외한 28편의 연구 중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7편(53.1%)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이 6편(18.8%), 개인과 부부가 혼합된 형태가 3편(9.4%), 가족이 2편(6.3%)의 순서로 연구되었다. 이마고 관계치료가 다양한 관계에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처음 소개 될 때 이마고 부부관계치료로 책이 출판되고 소개되면서 부부치료의 임상장면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는데, 조아라와 오제은(2014)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이마고 짹에 대해 살펴본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마고 관계치료의 워크숍과 전문가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문정화(2020)가 상담을 거부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자녀를 제외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 프로그램(대상관계 모델, Bowen 모델, 이마고 대화법, MRI의 의사소통 모델)을 16회기 실시한 후에 변화를

살펴본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의 프로그램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의사소통방식의 변화되고, 감정 반사적 반응이 감소하였으며, 은둔형 외톨이 자녀는 자기 개방성 향상되고, 병리적 증상 완화되었으며,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마고 관계치료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의 흐름과 성과를 정리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이마고 관계치료의 성과를 살펴보면, 이마고 관계치료의 주요한 기법인 이마고 대화법은 첫째, 의사소통을 할 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둘째, 반응성을 낮추는 동시에 경청능력을 향상시키고, 셋째, 부부간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자신과 파트너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고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관계에 헌신하고 새로운 이마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결혼만족도나 부부의 관계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제시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마고 관계치료 연구들을 발행된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2008년을 제외하고 2004년 이후로 거의 매년 1편 이상 논문이 발행되어 왔다. 눈에 띄는 성장이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이마고 부부치료사가 지속적으로 임상현장에서 활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연구되어 왔음을 확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연구방법별 동향을 살펴보면, 5개의 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가 15편(46.9%)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그 다음으로 성과연구가 12편(37.5%), 문헌연구 4편(12.5%), 과정연구 1편(3.1%)의 순서

표 4. 연구 대상별 분포

대상	개인	부부	가족	개인 /부부	계
논문수 (편)	6	17	2	3	28
비율 (%)	18.8	53.1	6.3	9.4	100

로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까지 이마고 관계치료에 대한 연구가 비치료연구인 경험연구나 문헌연구에 비해 치료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사례연구가 많다는 것은 임상적 관점에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기에는 문헌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실제 임상장면에서 치료적인 적용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마고 관계치료모델의 효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대규모 무작위 통제 실험 설계연구가 전무하고, 이론/모델을 검증하거나 척도를 개발 및 검증하는 경험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대부분 성과연구 논문들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가 애초 상담자 - 내담자로 만난 관계가 아닌 교수와 학생, 종교인과 신자와 같은 이중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성과연구에 포함된 논문들의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연구대상별 분포를 보면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7편(53.1%)으로 절반을 차지하였다. 이마고 관계치료는 모든 관계에 치료적 적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 외에 다양한 관계에 적용한 연구가 없어 아쉬웠다. 이에 대해 이유를 살펴보면, 이마고 관계치료가 국내에 '이마고 부부치료', '이마고 부부관계치료'라는 번역서로 소개되고, 관련 자격증도 '국제공인 이마고 부부치료전문가'로 명칭 되어 있다 보니 커플에만 적용 가능한 치료로 오인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관계치료라는 용어가 익숙지 않다 보니 가족치료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하위체계인 동시에 대표적인 이자관계(dyad)인 커플관계에 많이 적용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마고 관계치료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마고 관계치료 연구가 매년 꾸준히 발행되고 있으나, 국제공인

이마고 부부치료사가 양성되는 것에 비해 이마고 관계치료관련 논문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수준이라 볼 수 있겠다. 이는 이마고 관계치료가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하더라도 연구를 통한 치료개입의 과정과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마고 관계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치료로 인정받고 저변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개별 연구를 통한 양적, 질적 연구의 확장과 아울러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보다 많은 연구의 필요성에 덧붙여, 연구 방법에 있어 이마고 관계치료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치료적인 요인을 탐색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척도개발 및 검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국외에서는 이마고 관계치료의 무작위 통제 실험연구(Gehlert, Schmidt, Giegerich, & Luquet, 2017)와 이마고 관련 다양한 워크숍의 효과성 연구 (Muro, Holliman, & Luquet, 2016; Schmidt, Luquet, & Gehlert, 2015)가 있다. 아울러, 이마고 관계치료의 치료적 요인에 대한 연구(Holliman, Muro, & Luquet, 2016)가 있어 이마고 관계치료의 임상적 효과성과 모델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 시도들은 이마고 관계치료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과학적인 근거와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대상에 있어서 치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한 편도 없었는데, 앞으로 치료자의 치료 경험에 대한 연구, 치료자-내담자 쌍 연구,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 쌍 연구 등이 필요해보인다. 또한,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치료자의 발달이나 성장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나 치료모델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데 치료자의 역할이 중요함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이마고 관계치료의 적용대상을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교우 관계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외에서도 다양한 관계들에 이마고 관계치료를 개입한 연구는 없으나, 이마고 관계치료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관계치료로서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향후 국외 연구와 국내 연구의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의 특징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게재된 연구의 동향만 살펴보았으나 국외 논문을 함께 살펴봄으로서 추후 이마고 관계치료의 치료적 화장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구 방향과 타 이론과의 통합적 적용방안 등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자문과 감수를 받았으나 연구자 한명이 연구방법을 분류하였으므로 타당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연구방법이 적용된 논문들을 분류하기 위해 가족치료 연구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논문에서 사용된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연구방식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주제를 나누기 애매한 영역들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과정연구로 분류된 논문은 사실 과정연구라기 보다는 사례분석연구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논문을 과정연구에 포함시켰지만 사실 하나의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과정연구, 즉 실제 이미 효과성 검증이 된 치료모델의 변화요인/과정을 탐색하는 목적의 연구라 볼 수 없다(최연실, 2002). 이에 사례연구 논문에서 단순 사례보고와 사례연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객관적인 지침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연구의

편수가 적고 대다수의 연구가 치료연구에서도 사례연구의 비중이 높았다. 이에, 일반적인 통계방법으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에 한계를 느껴 연구주제와 통계적인 방법이 혼용된 연구들을 사용하여 논문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향후 대규모 성과연구와 비치료적 경험연구가 늘어난다면,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구분하여 논문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권형진 (2020). 부부 갈등을 거리 두기로 표현해 온 40대 부부의 이마고 부부상담 사례연구. **부부가족상담연구**, 1(1), 49-64.
- 금선미, 심혜진 (2019). 교류분석 상담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교류분석상담연구**, 9(1), 171-189.
- 김덕수 (2011). 이마고 관계치료 참가 후 목회자의 목회 사역과 하나님 이미지 재구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예슬, 최명선 (2018). 부부관계치료를 병행한 가족 미술치료가 불안정애착아동의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4(2), 253-275.
- 김창호 (2020). 목회자 부부의 목회관계 패러다임과 이마고 치료.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현우 (2019). 건강한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이마고(imago) 부부치료의 활용: 주안장로교 회 부부학교 남성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정화 (2020). 상담을 거부하는 학업중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자녀의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7(3), 73-99.
- 박진수, 최광현 (2020).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인형 치료를 적용한 부부치료 사례 연구. **한국기**

- 독교상담학회지, 31(1), 97-124.
- 변복수, 오제은 (2010). 이마고 관계치료를 통한 어린 시절 상처 인식의 변화와 배우자 이미지 변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간 이해*, 31(1), 47-63.
- 변은주 (2017). 이혼위기를 극복한 부부의 사례연구-이마고 부부관계치료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4), 119-140.
- 서진환 (2008).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연구경향 분석 연구-창간호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가족과 가족치료*, 16(2), 1-30.
- 송정아 (2005). 이마고 관계치료 이론의 타당성 연구-배우자 선택과 이마고형성이론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1), 261-274.
- 송정아 (2006). 이마고 관계치료 모델 내용의 타당성과 적용 효과성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4), 87-99.
- 심수명 (2004). 부부치료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한 모형으로서 심수명의 이마고 부부 치료 프로그램 효과 검증. *국제신학*, 6, 267-299.
- 오제은 (2005). 가족상담: 커플관계 치료에 있어서 어린시절의 상처치료의 중요성: 이마고 커플관계치료와 내면아이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3), 1055-1070.
- 이명희 (2007). *부부치료에 관한 Imago와 Gottman 모형 통합적 접근 모델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선 (2010). *크리스챤 기혼여성들의 이마고 관계치료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2016). 이혼숙련기간 중 통합적 부부치료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역할 제고 방안. *사회적경제와정책연구*, 6(1), 1-37.
- 이효경 (2009). 이마고 부부치료를 활용한 통합적 미술치료가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미치는 사례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2), 103-125.
- 전소원 (2013). *이마고 기법을 이용한 음악심리치료가 부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교영, 신희천 (2007). 부부치료의 주요 이론적 접근과 최근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9(1), 1-30.
- 정정화, 윤가현 (2018). 이혼 위기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마고 관계치료. *복지상담교육연구*, 7(2), 25-48.
- 조아라, 오제은 (2014). 미혼여성이 연애경험 중 인식하는 아버지와의 관계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26(2), 479-501.
- 최연실 (2002). 한국가족치료연구에서의 질적방법론의 활용. *가족과가족치료*, 10(1), 101-129.
- 최은경 (2004). 이마고 부부치료의 한국교회 적용 연구. *복음과상담*, 2, 261-277.
- 최빛내, 최우정, 최연실 (2018). 커플치료의 연구동향 분석-국내 상담 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 *가족과가족치료*, 26(2), 310-320.
- 최혜숙, 권현용 (2015). 소통 단절 부부의 통합적 접근 부부상담 사례연구. *동서정신과학*, 18(1), 83-100.
- 통계청 (2021). *2020년 혼인·이혼 통계*. 대전: 통계청.
- 한유진, 오소정 (2015). 예비부부의 개인 및 관계성장을 위한 이마고 기법을 활용한 커플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아동학회학술발표논문집*, 11, 238-239.
- 한유진, 오소정, 김연선 (2015). 예비부부의 개인 및 관계성장을 위한 이마고기법을 활용한 커플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0(3), 61-86.
- Brown, R. (2009).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이론과 실제 [Imago relationship therapy: An introduction]*

- to theory and practice].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9년 출판).
- Gehlert, N., Schmidt, C., Giegerich, V., & Luquet. (2017).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imago relationship therapy: Exploring statistical and clinical significance. *Journal of Couple & Relationship Therapy, 16*(3), 188-209.
- Hendrix, H., Hunt, H. (1999). Imago relationship therapy: Creating a conscious marriage or relationship. In R. Berger, & M. T. Hannah (Eds.), *Preventive approaches in couples therapy* (pp. 169-195). Philadelphia: Brunner /Mazel.
- Holliman, R., Muro, L., & Luquet, W. (2016). Common factors between couples therapists and imago relationship therapy: A survey of shared beliefs, valu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24* (3), 230-238.
- Luquet, W. (2004). 이마고 부부치료[*Short-term couples therapy: The imago model in action*]. (송정아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6년 출판).
- Luquet, W., Hannah, M. T. (2011). 부부관계 패러다임: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임상사례 연구집[*Healing in the relational paradigm: The imago relationship therapy casebook*]. (오제은, 이현숙 공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8년 출판).
- Muro, L., Holliman, R., & Luquet, W. (2016). The impact of the safe conversations workshop with diverse, low-income coupl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4* (3), 155-167.
- Schmidt, C., Luquet, W., & Gehlert, N. (2015).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getting the love you want couples workshop on relational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patterns. *Journal of Couple and Relationship Therapy, 15*(1), 1 - 16.

원고 접수일 : 2021년 03월 26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1년 05월 15일

게재 확정일 : 2021년 05월 28일

An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on the Imago Relationship Therapy

Yi, Min-You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hildren's Hospital

Among the various treatment theories, Imago's Relationship Therapy, an integrated psychotherapy technique for healing and growth in relationships, is emerging as one of the treatment models being used to reduce the growing marital conflict and family crisis caused by Corona 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Imago relation therapy so far in Korea, to organize the flow and performance of research and to present future research directions. A total of 32 academic journals' papers were published from 2004 to 2020, and trends were analyzed by publication year, research method, and research subject. The development year was published steadily, starting with two academic journal papers in 2004, with 43.2% of academic papers and 37.8% of degree papers. By research method, case studies were 46.9%, performance studies 37.5%, literature studies 12.5%, and process studies 3.1%. By study subjects, 53.1% of couples, 18.8% of individuals, 9.4% of individuals and 6.3% of families were mixed. Finally, he revealed the therapeutic factors of Imago relationship therapy and suggested that empirical research and counsellor research and expansion of subjects are needed.

Keyword : Imago Relationship Therapy, Trends of Research

중년후기 나이듦의 인식에 관한 문헌연구

김 신 영* 김 영 은**

데이브레이크대학교

최근 우리나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은퇴 후 길어진 노년기 삶으로 인해 나이듦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년기 진입에 앞둔 중년 후기 세대의 나이듦의 인식이 어떠한지 기존 연구들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이듦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출간된 논문을 중심으로 중년후기 나이듦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최종 학위논문 15편과 학술지 11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이듦에 대한 인식은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되었고, 그중 신체적 영역에서 신체적 기능 저하가 가장 높게 나이듦을 인식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심리적 영역에서는 소외감/우울감을 느낄 때 가장 많이 나이듦을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회적 영역에서는 사회적 지위/역할 상실과 대인관계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높게 나이듦을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0년 동안의 연구에서 중년 후기 나이듦의 인식의 변화에 대해 주목할 만한 차이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꾸준한 성공적 나이듦에 관한 연구로 앞으로 길어진 노년기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나이듦에 관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사점을 결론을 통해 제시하였다.

주요어 : 나이듦, 나이듦인식, 중년기, 중년후기, 은퇴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신영 테이브레이크대학교 박사과정, Daybreak University, 181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 310-739-0132, E-mail : vepal231@naver.com

** 공동저자 : 김영은, 테이브레이크대학교 부부가족상담대학원 연구교수

최근 인간의 수명은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점점 길어지고, 역할의 변화로 인해 인간의 삶의 모습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UN은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중이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2020년 4월 현재 65세에서 100세까지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0). 국내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비율이 1970년 3.1%에서 2000년도에 7.2%, 2018년에 14.3%로 가파른 상승을 보여 왔고, 2028년도에는 20.8%로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나이듦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이듦(aging)이란 노화를 의미하며,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의 이치이며 삶의 과정이다. 나이듦은 생물학적으로 신체 변화가 시작되는 중년기부터 시작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사회적 변화도 느끼게 되면서 위기와 전환점의 시기로 인식된다(오제은, 2013). 또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나이듦 경험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Choi, Paik, & Seo, 2005). 삶의 형태에 따라 나이듦의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이는 각기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최성재, 2009). 즉 나이듦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인 맥락과 함께 개인의 성향, 적응 등과 관련이 있으며 나이듦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노년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지영, 2020). 또한 나이듦은 사회적, 개인적인 변화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제이기도 하다(Elder, 2006).

나이듦에 대한 이미지는 시대에 따라 변해 왔는데(박지수, 2007), 효(孝)를 중시하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문화권에서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랫동안 유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에서는 나이듦은 경

험과 연륜이 쌓이고 그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주요 의사 결정권자로도 존경을 받았다(황민영, 정순돌, 김주현, 2018). 그러나 산업화와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노인의 경험과 지식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 시대적 경험과 지식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맞지 않는 가치 없는 정보로 인식되어 시작하면서 노인은 점점 소외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즉, 현대 사회에서의 노인의 이미지는 능력이 없으며 돌봄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노년기는 상실의 시기로 묘사되어 왔고(김복순, 2006) 산업화 이후 부정적 이미지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조명희, 2014; Levy, 2009).

실제로 국내 드라마나 광고에 나오는 노인을 보면 주로 자녀를 기다리는 소외된 모습이나 돌봄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가정 내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으로만 등장하는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양정혜, 2011). 과거 존경의 대상이었던 노인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무능하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바뀌었으며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개인을 둘러싼 문화적 배경에 따라 자연적으로 내면화되며 이렇게 내면화된 노인에 대한 인식은 추후 나이듦에 대한 자기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배문조, 2012; Levy, 2009). 이와 같이 나이듦의 인식과 노화에 대한 이미지는 사회적 맥락, 사회 환경의 변화, 그리고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상당히 변화되어 왔다.

이와같이 나이듦은 발달단계의 적응과정으로 점진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강지애, 2015)으로 볼 수 있으며 나이듦을 강하게 인식하는 중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년기란 노년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성인 단계를 일컫는 개념으로 보통 40세에서 64세까지로 구분되어 진다(김혜경 2013; 노연희, 2017). 이 중에 중년 후기는 중년의 절정기(55-60세)이면서 노년기로 전환되어가는 55세부터 60세 중반까지 아우르는 시기로 볼 수 있으며(Levinson, 2012), 국내연구에서도 비슷하게 55

세부터 64세까지 중년 후기로 정의하고 있다(박지수, 2007). 이 시기는 노년기를 준비하고 전환해 가는 과도기적인 발달단계로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경험에 대한 탐색이 중요한 시기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중년 후기에는 은퇴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물론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혼, 그리고 자녀들의 독립 등으로 인해 부부 관계 및 가족관계의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하였다 (박지수, 2007). 또한 이들은 젊은 세대로부터 무능력한 존재, 부담스럽고 의존적인 세대 또는 대접을 받기보다는 존경받는 사회구성원으로서 협력적인 관계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세대이다(이인혜, 2013). 그리고 중년 후기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통 가족에서 핵가족화로,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 문화로의 전환 등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또한 이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측면과 학력의 차이뿐 아니라 각 개인이 겪는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등에서 다양한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노후에 대한 인식과 노후 준비에 대한 연구도 주목받고 있다(강인, 2016; 이용재, 2013). 한편,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스스로 경험되는 신체적 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내기도 한다(문리학, 2014).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최근 많은 연구자가 나이듦에 관련된 주제들에 관심을 쏟고 있다(강인, 2016; 김유중, 2017; 권명숙, 2002; 박상훈, 2019; 박은선, 2014; 양윤정, 2020; 엄현목, 2019; 이기홍, 정병은, 2010; 조명희, 2014; 조성희, 2018; 최인영, 2015; 황지은, 2019)

이와 같은 중년후기는 연륜과 풍부한 경험을 자원으로 절정의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상실을 경험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노년기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때에

그들의 나이듦의 인식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중년 후기 나이듦의 인식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또한 그들이 인지하는 성공적인 나이듦의 요인이 무엇인지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중년 후기 나이듦에 대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논문 선정 기준

본 연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4U), 한국학술정보(KISS)를 검색하였고, 그 결과 “나이듦(노화), 중년기”를 주요어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408편의 국내에서 출간된 논문을 찾았다. 이 중에 “나이듦의 인식”, “중년후기”를 주요어로 다시 선별 하였으며 두 주요어가 있더라도 본 연구 취지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제거하고, 최종 학위논문 15편과 학술지 논문 11편을 선정하였다. 이에 총 26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중년후기 나이듦의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틀

중년후기 나이듦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의 전반적인 틀을 위해 연도별로 출간된 논문을 정리하고 연구방법, 연구대상, 나이듦의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나이듦의 인식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빈도와 백분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선정된 논문 중 성공적 나이듦에 대하여

분석하여 중년후기 나이듦에 관한 인식을 확장하고 나아갈 방향을 고찰하였다.

결과

연도별 나이듦의 인식에 관한 논문 분석

먼저 출간된 논문을 연도별로 구분하고 연구방법, 연구대상, 각 논문의 나이듦의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26편의 논문 중 학위 논문은 15편, 학회지 논문은 11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양적 연구는 17편, 질적 연구는 8편, 혼합 연구는 1편으로 분류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17편의 논문이 남녀 혼합 연구로 진행되었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7편, 남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1편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양적연구 방법을 사용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중년후기 세대는 신체적으로 나이듦을 인식하는 것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은 질병에 대한 불안이나 우울, 고립감 같은 심리적으로

나이듦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으로 나이듦을 인식하는 것은 사회에서의 역할변화, 경제소득의 상실, 대인관계의 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논문에서는 심층 면접을 통해 양적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개인의 삶 속에서 인지되는 나이듦에 대해 탐색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낯선 자신을 발견하고 받아들임',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짐', '의식 선상에 들어 온 죽음', '내 안에서 아버지를 봄'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질적 연구에서는 주로 성별을 구분하여 연구되었으며 여성 대상으로 한 논문 6편, 남성 대상 1편, 혼합연구 1편 총 8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의 중년후기 나이듦에 대한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주목할만한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중년 후기 나이듦에 관한 논문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 첫째, 감퇴와 상실에 의한 나이듦의 인식, 둘째, 성공적 나이둠의 인식, 셋째, 질적 연구에서의 주관적 나이둠의 인식, 넷째, 타인에 의해 경험되어지는 나이둠 인식, 다섯째, 은퇴와 관련한 나이둠의 인식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 연도별 나이둠에 대한 인식 관한 논문분석

연도별	저자	연구방법	연구대상	나이둠 인식
2010	안정숙	양적연구	중년초기 남성 204명, 여성 275명 중년후기 남성 266명, 여성 200명	신체적, 인지적, 경제적 쇠퇴, 사회적 지지를 잃음
	이기홍, 정병은	양적연구	만 20세이상-70세 남성 453명, 여성 547명	신체적 변화, 역할의 감소
2011	주용국	양적연구	은퇴자(중년후기) 남성 247명, 여성 166명	신체적 변화, 심리적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역할의 변화, 경제력 감소
	배문조	양적연구	30-50대 남녀성인 732명	신체변화, 은퇴, 역할감소, 관계변화
2012	길태영	양적연구	1963-1955년생 남성 164명, 여성 202명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인식, 경제활동의 변화, 심리적 위축감
	강정희, 설연옥	질적연구	중년 독신여성 7명	신체적 기능약화, 경제활동의 위기, 은퇴 후 할 일을 위해 준비

년도별	저자	연구방법	연구대상	나이듦 인식
2013	이용재	양적연구	40-65세	신체적 건강악화, 경제력 감소
	오제은	질적연구	중년기, 40-59세	심리적 불안, 신체 및 정신력감퇴, 가족의 변화
	조진희	양적연구	중년기여성, 40-60세, 296명	자기효능감, 자기성취감, 대인관계, 사회활동
2014	강성욱	양적연구	35-65세미만, 남녀 322명	경제력감소, 질병에 대한 불안, 심리적 고립, 역할상실
	박은선	질적연구	65세, 여성 3명	낯선 자신을 발견, 심리적, 심리적 변화 수용, 관계변화에 대한 수용, 낯선 나를 받아들임
2015	이건혜	양적연구	60세이상, 남성 708명, 여성 1,314명	역할 상실, 심리, 인지적 변화, 관계의 변화
	정석식	양적연구	40대-50대, 남성 118명, 여성 166명	질병에 대한 불안, 인지기능감소, 역할변화(은퇴 등)
	최은영, 최혜경	양적연구	1963-1955생, 남성 227명, 여성 206명	소외, 상실감, 역할변화, 관계변화
	이윤주, 박정숙	양적연구	50-64세, 여성 220명	신체기능변화, 사회적 기능변화
2016	김효영	질적연구	중년기 미혼여성, 40-50대, 6명	타인의식하며 주저함, 위축감, 노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
	장인	양적연구	1963-1955년생, 남성 430명, 여성 383명	저하된 신체적 기능, 소득상실, 질병
2017	노연희	질적연구	미혼, 40-50세, 여성 10명	타인의 시선의식, 죽음, 고독으로 인식됨
	정홍인	양적연구	40-60세, 남녀 359명	신체기능저하자각, 사회에서의 역할변화
2018	조성희	질적연구	50-52세, 여성 20명	몸의 쇠락의 흔적, 삶의 유한성을 자각, 역할 재확인, 나에 대한 자각
	변진숙	양적연구	30-50대, 여성 100명	신체쇠퇴, 심리적 위축, 소외
	김보미	양적연구	중년 여성 189명	심리적 소외, (우울)
2019	박상훈	양적연구	중년 남성 230명, 여성 218명	퇴직 등 강요된 좌절, 노후준비 자각
	황지은	혼합연구	45-80세, 남성 10명, 여성 25명(질적) 남성 214명, 여성 215명(양적)	신체 및 건강기능이 저하, 대인관계축소, 대인관계에 관대해짐, 영성생활에 관심, 자신을 위해 뭔가 시도하는 즐거움,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짐
	양윤정	질적논문	50, 기혼자, 남성 6명	신체적으로 달라진 나, 의식선상에 들어온 죽음, 경제력 상실, 내안의 아버지를 봄
2020	정지영	질적논문	47-63세, 남성 4명, 여성 12명	신체적 인지적 능력의 저하, 대인관계의 변화

첫째, 감퇴와 상실에 의한 나이듦의 인식

이건혜(2015)는 나이듦의 인식에 대해 신체적 기능 감퇴로 인한 건강 문제, 질병,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상실이 대두된다고 보았으며 이정희(2015)의 연구에서도 역할에 대한 상실, 소외감, 고독을 느낄 때 나이듦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중년기 미혼여성의 나이듦의 인식에 관해 질적 연구를 한 노연희(2017)는 그의 연구에서 중년기 미혼여성들

은 자신을 아직 젊은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중년기 나이듦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중년기 미혼여성들은 건강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건강관리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계획적인 실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중년기 미혼여성들은 성공적인 나이듦의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임유진(2018)은 고 경력자의 나이듦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는데 고경력 나이 든 교사들은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나이듦의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나이와 상관없이 타인의 시선에 의해 나이듦의 차이를 느낄 때, 삶의 모습이 변화될 때 나이듦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석인, 김성희, 김수연과 허수임(2018)은 주관적 인식이 노년기 삶에 유의함을 확인함으로써 주관적 나이 인식의 중요성에 주목하였으며 황민영, 정순돌과 김주현(2018)도 자신의 나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 신체적으로 기능 저하와 심리·사회적으로 역할의 감소 등으로 우울감을 느낄 때 나이듦을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지은(2019)은 노화 알아차림 척도를 개발한 논문에서 노화 인식에 대해 각 개인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두었으며 이는 신체와 정신으로 구분하여 '신체, 외모'에 대한 주관적 연령, '사회적 연령, 감성 연령', '타인지각 연령', '희망 연령' 등으로 확장시켜 제시하였다. 또한 노화 알아차림 이론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중·장년 한국인 노화 변화 알아차림 척도(AARC)를 개발하였는데, 나이듦의 자기 인식의 차원을 살펴보면 첫째, 나이듦에 대한 인식, 둘째, 성숙과 지혜와 같은 성장에 대한 인식, 셋째,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 넷째, 신체 기능이나 인지적 기능과 같은 생물학적 기능 쇠퇴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중년 후기에 나타나는 대인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그 외 심리적인 문제가 나이듦 인식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 정석식(2015)은 나이듦에 대한 불안이 성공적 나이듦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김보미(2018)는 우울함이 나이듦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둘째, 성공적 나이듦의 인식

다음은 성공적인 나이듦의 요인과 나이듦 인식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 이기홍과 정병은(2010)은 세대별로 나이듦에 대한 경험과 기준이 다르고 그 의미도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밝혔으며 또한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성공적 나이둠의 의미를 조사하여 세대별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설명하였다. 이정희(2005)는 그의 연구에서 성공적 나이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실이나 소외감 등의 부정적인 나이둠을 인식하지 않도록 자아통합을 위해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과 영성 활동을 제안하였으며 김보미(2018)는 나이둠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우울을, 긍정적 요인으로는 삶의 만족도와 가족 탄력성을 제시하였다. 강인(2016)도 그의 연구에서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 효능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인 나이둠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은 중년기와 노년기를 만족스럽게 보내기 위해 성공적인 나이둠 인식의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나이둠은 노화에 따른 여러 변화로부터 잘 적응하면서 삶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라고 정의한 문형권(2018)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강지애(2015)는 성공적 나이둠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개인의 노력여부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박상훈(2019)은 그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개인이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는 현실성 있는 계획이나 필요한 준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준비 교육의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셋째, 질적 연구에서의 주관적인 나이둠 인식

박은선(2014)은 중년 남성이 경험하고 있는 나이둠이라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해석함을 통해 이들의 주관적 실재를 이해 가능한 구조로

구성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나이가 드는 것이 더욱 나은 인격을 갖추고 배려와 소통을 실천하는 것, 세파에 잊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다시 찾는 것, 기준에 지키고자 했던 틀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삶에 대한 조망과 통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기준의 연구보다 나이듦에 인식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개방적인 태도와 유연함에 즐거움을 느끼며 기죽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나이듦을 마주하는 보다 바람직한 태도임을 제안하였다.

한편 중년 미혼여성의 나이듦에 대해 연구한 김효영(2016)의 논문에서는 결혼에 대한 주저함, 원가족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 익숙한 것에 대해서 예전과는 다르게 당당하지 않음, 장차 노년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나이듦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초등 여교사의 나이둠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조성희, 2018)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이둠의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중년기 초등 여교사는 자신의 몸의 쇠락 흔적을 인식하게 되고 체험된 시간(시간성)과 관련하여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삶의 유한성에 대해 자각하게 될 때,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돌보고 배려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나이둠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효력을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고 가정에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평가하면서 학교와 가정에서의 역할의 통합성을 추구할 때 나이둠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둠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나이둠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희정, 2019). 위의 두 연구가 비슷한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하였음에도 나이둠에 대한 인식에서 이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미혼 여성과 기혼여성과 차이와 노후가 대비되는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는가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타인에 의해 경험되어지는 나이듦 인식 양윤정(2020)은 그의 연구에서 나이듦은 자연스러운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함축된 의존과 상실로 인하여, 젊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나이듦이란 쇠락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힘과 권위에 대한 상실과 경제적인 변화, 역할의 변화로 인해 사회 문화적 평가 절하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지영(2020)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인지적 기능의 감퇴, 사회적 역할 상실 및 고립, 친지 혹은 배우자와의 사별 등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중장년층의 정서적 안정이 저하될 것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나이둠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나 나이둠에 따른 질병에 대한 위험과 실직이나 죽음 등과 같은 위기의식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한 위기의식의 경험이 모두 삶의 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연구 결론을 통해 사람은 평생학습을 통해 배우며 살아야 하며 나이둠의 과정을 동료 학습자와의 성찰적 담화를 통해 행동으로 옮기면서 실존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결론지었다. 양윤정(2020)은 50대 기혼남성 6명을 심층 인터뷰한 현상학 연구에서 나이둠에 대한 인식에 대해 신체적으로 달라지는 나, 의식 선상에 들어온 죽음, 경제적 상실, 내 안에서 아버지를 봄, 달라진 나, 타인이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다섯째, 은퇴와 관련한 나이둠의 인식

다음은 은퇴와 관련하여 나이둠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이은주(2013)는 은퇴경험이 5년 이내인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활동 모임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기능을 향상해 성공적 나이둠을 인식한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최은영과 최혜경

(2015)은 우리나라의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공적인 나이듦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는 낮고,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공적인 나이듦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은퇴 준비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본 연구와 일치하는 대상인 1차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는 성공적인 나이듦의 인식이 높을수록 은퇴 기대를 소외 및 상실로 보는 정도가 낮고, 새로운 기회로 보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자를 대상으로 연령별로 성공적 나이듦에 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한 정주영과 이미란(2021)은 그들의 연구에서 은퇴자들의 나이듦에 대한 인식은 은퇴 이후 초창기에는 서글픔, 쓱쓸함, 서운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이 나타났으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은퇴자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자신과 가족과 사회를 생각하며 결국 나이듦에 대해 스스로

노력하고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 정석식(2015)은 은퇴를 앞둔 직장인을 대상의 연구에서 나이듦 인식에 따른 심리적 불안에 대해 심리적 안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최은영과 최혜경(2015)은 성공적 노화 인식과 은퇴 기대가 추후 은퇴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하였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나이듦의 인식

중년후기 나이듦의 인식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대상인 26편의 논문을 각 영역별로 나이듦의 인식을 범주화 하였으며 그 빈도를 제시하고 백분율로 수량화 하였다. 먼저 신체적 영역에서 나이듦의 인식을 살펴보면 신체적 기능저하(기억력

표 2. 나이듦의 인식에 대해 신체, 심리, 사회적 영역으로 분석

구분	나이둠에 인식	N (%)
신체적	신체적 기능 저하 (기억력 감소)	14(61%)
	건강 이상 (건강을 돌보기 시작할 때)	4(17%)
	신체적 변화 (달라지는 외모)	5(22%)
심리적	심리적 소외감, 고립감, 우울감	7(38%)
	영성에 대한 관심 (종교)	1(6%)
	친지 또는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상실감	1(6%)
	심리적 위축감 (당당함 저하)	3(17%)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 인식될 때	5(29%)
	삶의 유연함/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 커짐	1(6%)
사회적	사회적 지위, 역할감소 및 상실	8(28%)
	경제적 수입의 변화 (감소 또는 없어짐)	6(20%)
	대인관계의 축소 및 변화를 경험할 때	8(28%)
	나이 듦에 대한 타인의 시선이 인지 될 때 (부정적)	2(7%)
	가정과 사회에서의 힘과 권위 상실을 느낄 때	3(10%)
	노년에 할 일을 탐색 할 때	2(7%)

감소)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체적 변화(달라진 외모) 22%, 건강이상(건강을 돌보기 시작할 때) 17%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영역에서는 소외감과 고립감 우울감을 느낄 때 38%로 가장 높게 나이듦을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다음은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 인식될 때 29%, 심리적 위축감(당당함 저하)될 때 17%로 나타났다. 한편, 친지 또는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상실감, 영성에 대한 관심, 삶의 유연함을 느낄 때는 각각 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역에서는 사회적 지위, 역할 감소 및 상실(28%)과 대인관계의 축소 및 변화를 경험할 때(28%) 가장 높게 나이듦을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수입의 변화 20%, 가정과 사회에서 힘과 권위상실을 느낄 때 10%로 나타났다. 노년에 할 일을 탐색할 때와 나이듦에 대한 타인의 시선이 인지 될 때는 각각 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성공적 나이듦의 분석

중년후기 나이듦의 인식을 확장하고 나아갈 방향을 고찰하고자 선정된 논문 중 성공적 나이듦에 관해 기록한 논문 17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중년 후기 세대가 인식한 성공적인 나이듦에 대해 앞서 표 2에서 제시한 바 있는 신

표 3. 성공적 나이듦의 요인

년도	저자	성공적 나이둠의 요인
	안정숙	사회적 지지, 경제적 안정, 신체건강, 심리적 안정
2010	이기홍, 정병은	자녀의 성공, 건강한 신체, 긍정적 태도, 자아 수용, 부부 및 가족화목
2011	주용국	신체적 건강, 심리적 안정, 대인관계 유지, 자녀 성공, 자기완성 지향, 변화를 극복
2012	김유자 배문조	건강한 신체유지, 경제활동 유지, 종교생활 사회적 지지, 신체적 안녕, 경제적 안녕, 자아통합, 생산성, 자녀의 행복
2013	이용재 오제은	신체적 건강, 경제적 안정노후 준비 자기탐색을 통한 통합적 자기이해, 영성 생활
2014	강성욱	노후준비(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일상의 안녕
	이전혜	소득 활동, 사회참여활동 건강유지, 노후 계획수립, 자율적 삶
	정석식	신체정신적 기능유지, 심리적 안정감, 대인관계 및 적극적 사회활동, 노후준비
2015	최은영, 최혜경 이윤주, 박정숙	건강, 은퇴 후 준비, 부부애로, 자녀 성공, 잠재능력개발, 여가, 종교 건강, 경제적 안정, 가족의 안녕, 영적성장, 대인관계
2016	강인	신체적 건강, 개인성장, 사회활동참여, 자율성, 경제적 안정, 배우자, 종교
2017	정홍인	사회적지지, 주관적 건강 상태, 경력발달 과업
2018	변진숙 김보미	건강상태 앙호, 문화, 여가 활동, 교육 참여 심리적 편안함, 삶의 만족, 사회적 관계망, 자아 탄력성
2019	박상훈	노후 대책마련, 긍정적인 퇴직태도, 지속적인 경제활동
2020	정지영	삶의 중심 찾기, 함께 배우고 나누며 만들기, 건강한 몸과 마음의 온전한 하나 되기, 완만한 내리막길에서 삶의 의미 찾기, 영성생활

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으로 동일하게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신체적 영역에서 살펴보면 신체적 건강과 신체 기능 유지가 대부분의 논문에서 제시되었으며 성공적 나이듦의 요인으로 가장 높이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이 중년후기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심리적 영역에서는 자아수용, 긍정적 태도, 심리적 안정, 자기완성지향, 자기탐색을 통한 통합적 자기이해, 자기성장, 잠재능력 개발, 자아 탄려성, 긍정적인 퇴직태도, 완만한 내리막길에서 삶의 의미 찾기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중년후기 나이듦의 인식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많았던 것에 비해 성공적인 나이듦에서는 자기이해와 성장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을 연구한 강지애(2015)의 연구에서 심리적인 변인군으로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중년 후기 세대가 성공적 나이듦에 대한 사회적 영역을 살펴보면 경제적 안녕, 경제활동 유지, 경제적 안정노후 준비, 사회참여 활동, 자율적인 삶, 대인관계 유지, 은퇴 후 준비, 사회적 지지, 문화 및 여가 활동, 교육 참여, 여가, 함께 배우고 나누며 만들기 등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높은 경제 상태가 반드시 성공적 나이듦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안정은 중년 후기의 다양한 활동 기회를 높여주고 성공적 노후 생활을 지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년 후기 세대가 인식하는 성공적 나이듦의 요인에서 새롭게 추가된 영역이 있었는데 이는 가족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적 영역에서는 부부 화목, 가족화합, 부부 해로, 자녀의 성공, 자녀의 행복 등으로 나타났고, 종교적 영역에서는 종교 생활, 영성 생활 등으로 조사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중년 후기 나이듦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6편의 국내 논문을 분석하였다. 나이듦의 인식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선정된 논문 중 성공적 나이듦에 관한 연구를 분석해 제시함으로써 나이듦의 인식의 확장과 나아갈 방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듦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의 이치이며 삶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중년 후기 나이둠의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이지 않다. 선행 연구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더라도 그들은 한국 전쟁 직후 태어나 사회, 문화적으로 급변하는 격동적인 세월을 살아왔으며 사회에 적응하고 가족에 헌신하느라 자신을 돌볼 영유가 없던 세대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중년 후기 나이둠의 인식을 살펴보았으나 시간에 따른 뚜렷한 차이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변화를 추적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한 편 나이둠에 있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세대와 세대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최근 나이둠의 연구에서 양적 연구와 함께 질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양적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심층 면접을 통해 개인의 환경과 맞물려 진솔하게 드러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중에 중년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중년기 초등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같은 중년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나이둠의 인식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속한 일차환경(가정)의 역할 유무와 노후가 대비되는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는가에 따른 차이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인구 사회학적인 변인으로 개인이 가진 자원에 따라 각각 나이듦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중년 후기 나이듦의 인식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세 개의 영역에서 고루 나이듦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듦은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넓은 뜻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Elder Jr., 200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영역에서 '신체적 기능 저하'가 나이듦의 인식하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년 후기에 접어들면서 신체기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신체활동의 위축과 건강상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신체 건강이 부각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노년기 삶에 있어 신체적 건강 상태에 따라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중년 후기의 신체 건강에 대한 높은 인식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영역에서는 심리적 소외감, 고립감, 우울감이 나이듦을 가장 높게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후기에 가장 많이 퇴직을 경험하는 나이로 자신을 보호해 주던 사회적 지위나 역할 상실로 위축감을 경험하며, 또한 나이듦으로 인한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정, 가족 및 대인관계 축소에 의해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경험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흔히 두 가지 이상 겹쳐서 발생 수 있음으로 중년 후기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할 수 있다. 우울은 나이듦에 있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심리적 기제로 부정적인 감정과 흥미 상실, 수면장애, 무기력증, 체중 감소, 무가치성, 인지장애 등의 증세로 나타나(한지나, 2017), 중년후기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전문화된 중, 노년기 상담 서비스를 제안하며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남순현, 2016).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는 중년 후기 나이듦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성장을 도우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이은주, 2013). 셋째, 중년 후기는 성공적인 나이듦에 대한 연구에서 폭넓은 요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과거 세대 보다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이 향상된 세대로 자기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 나이듦을 추구하려는 경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공적 나이둠의 요인을 살펴보면 일반적 나이둠의 인식과 달리 객관적 건강뿐만 아니라 주관적 건강에도 무게를 두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관적 건강은 스스로 지각하는 건강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객관적 건강보다 더 성공적 나이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종한, 2007). 이는 신체적 기능 수준이 낮더라도 스스로 신체 건강기능 수준이 높다고 느끼면 활동 의욕을 높아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신체, 심리, 사회 영역 전반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공적 나이둠의 요인에서 가족적 영역이 새롭게 추가된 것은 중년 후기로 갈수록 접촉 대상이 가족에게로 이동하고, 상호작용을 통한 가족지지가 성공적 나이둠의 기본요건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 한편, 종교적인 영역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종교는 사회와 개인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주며, 종교적 행사나 믿음이 부정적인 삶의 사건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대처 기제가 되기(김재철, 2008; 차세만, 2014)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중년 후기(53세-65세)의 나이둠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선별하였으나 연구대상에서 중년기(40세-65세)와 노년기(65세 이상)가 포함된 논문이 있어 연구주제인 중년 후기를 엄선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중년 후기 나이둠의 인식을 해

석하면서 각각의 논문을 통합했지만,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적 맥락과 그들이 살아온 삶의 계층적 맥락에서 해석되지 않은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듦에 대한 인식은 많은 부분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나이듦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지속하는가에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부정적인 나이듦 인식과 긍정적인 나이듦 인식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지와 아울러 삶의 질을 높일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6편의 논문으로 중년 후기 나이듦의 인식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많은 축적된 논문을 통해 나이듦의 인식을 더욱 깊이 있게 탐색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성옥 (2014). **중년층의 성공적인 노화 인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후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인 (2016).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9), 460-472.
- 강정희, 설연옥 (2012). 중년 독신 여성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2), 127-151.
- 강지애 (201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명숙 (2002). **노인의 성(Sexuality)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길태영 (2012). **베이비붐 세대가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미 (2018).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9), 91-99.
- 김복순 (2006). **초등학교 노인인식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유자 (2012). **노인의 역할수행과 종교생활·경제 형태에 따른 역할수행**.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유중 (2017). **중년기 여성의 지각하는 부부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성공적 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철 (2008). **중년기 남성의 위기극복을 위한 목회 상담적 접근: 하워드 클라인벨의 성장상담을 중심으로**. 장로신학대학 석사학위논문.
- 김효영 (2016). **중년 미혼 여성의 나이듦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2013). 노인과의 긍정적 교류경험이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세대통합적 노인유사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0(4), 45-68.
- 남석인, 김성희, 김수연, 허수임 (2018). 주관적 연령격차와 주관적 노후격차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연령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3(4), 181-216.
- 남순현 (2016). **노인의 일과 여가 의미에 대한 Giorgi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연희 (2017). **중년기 미혼여성의 노년 인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리학 (2014). **미술치료기반의 “미술작업 인터뷰”를 적용한 노인되어감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 박사학위논문.
- 문형권 (2018).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인식이 노후대책 및 은퇴태도에 미치는 영향: 조선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훈 (2019). **직장인의 노화인식에 따른 퇴직태도와 노후 준비 영향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은선 (2014). **중년 남성의 나이듦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종한 (2007). **성공적인 노년을 위하여: 노인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품위있는 노년 만들기**. 서울: 비봉출판사.
- 박지수 (2007). **중년후기 성인이 지각하는 여가제약, 여가충족,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50세-64세 중년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진숙 (2018). **2차 베이비붐 세대 여성의 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성공적 노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문조 (2012). **성인들의 노화사실 인지에 따른 노후 준비 의식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노인복지연구*, 58, 111-132.
- 안정숙 (2010). **초기성인과 중기성인의 성공적 노화인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윤정 (2020). **한국 기혼남성의 50대 삶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수도권 중산층 50대 유자녀 기혼남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정혜 (2011). **TV 광고가 재현하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 *커뮤니케이션론*, 7(1), 72-106.
- 엄현목 (2019). **고령화 시대 노인 문제 유형과 노인 목회를 통한 교회 성장 방안**.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제은 (2013). **중년, 위기인가? 전환점인가? 중년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 인간발달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관점을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37(3) 141-168.
- 이건혜 (2015).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 분석: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홍, 정병은 (2010). **연구논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연구: 1)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2), 46-69.
- 이용재 (201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5), 253-261.
- 이윤주, 박정숙 (2015). **중년후기 여성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건강증진행위의 관계**.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2), 1073-1086.
- 이은주 (2013). **중년 전업주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혜 (2013). **배우자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남성노인의 경험과 노후에 대한 인식**. 서울기독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희 (2015).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여가·자원봉사·영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정 (2019). **노인의 나이 둠 경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유진 (2018). **초등학교 고경력 교사의 정체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석식 (2015).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대와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 서울거주 40-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국항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주영, 이미란 (2021). **연령별 은퇴자의 성공적 노화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 11(3), 205-211.
- 정지영 (2020). 중장년 평생학습자의 '더불어 나 이듦'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홍인 (2017). 중장년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발달 과업 성취수준, 성공적 노화 예측요인, 성공적 노화간의 구조적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명희 (2014).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동향-학술지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3(2), 231-249.
- 조성희 (2018). 중년기 초등 여교사의 나이 듦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진희 (2013).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 예측모형.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용국 (2011). 전문직 은퇴자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30(1), 75-97.
- 차세만 (2014). 중산층 노인들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재 (2009). 수도권 지역 중년기 이후 세대의 노후생활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 29(1), 329-451.
- 최은영, 최혜경 (2015). 성공적 노화인식과 은퇴기대가 은퇴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1,2차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8(3), 23-57.
- 최인영 (2015). 한국 중년세대의 가치관과 성공적 인 노화인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20). 2020년 4월 통계청 자료. 대전: 통계청.
- 한지나 (2017). 나이듦에 대한 태도와 연령정체성이 노년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2(3), 47-69.
- 황민영, 정순둘, 김주현 (2018). 연령주의,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의 인식, 우울감 간의 관계: 베이비부머, 전기노인 및 후기노인 남성 세대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1), 65-103.
- 황지은 (2019). 노화 변화 알아차림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Choi, H. K., Paik, J. E., & Seo, S. Y. (2005).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mong korean elderl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2), 1-10.
- Elder, G. H., Jr., & Shanahan, M. J. (2006).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In R. M. Lerner & W. Dam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pp. 668 - 715). Hoboken: John Wiley & Sons.
- Levinson, D. J. (2012).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Season of a man's life*]. (김애숙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Levy, B. (2009). Stereotype embodiment: A psychosocial approach to ag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6), 332-336.

원고 접수일 : 2020년 09월 14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1년 05월 14일

게재 확정일 : 2021년 05월 28일

A Study on Perception of Aging in Late Middle Age

Kim, Sin-Young

Kim, Young-Eun

Daybreak University

Recently, as Korea enters an aging society, interest in aging is increasing due to the prolonged life of old age after retir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aging in late middle-aged adults and the direction in which research related to aging should proceed. To this end, from 2010 to 2020, focusing on domestic papers within the last ten years, we investigated the change in perception of aging. Among 408 papers on aging perception, 14 dissertations focusing on changes in aging perception and seven journal articles were analyzed. As a result, perception of aging was classified into three sub-domains, of which physical degradation was the highest recognition factor for aging in the physical domain. It was also found to recognize aging most when feeling left out and depressed in the psychological domain, and to recognize aging most when there is social status/role loss and interpersonal change in the social domain. Although no significant difference has been found in studies over the past decade in perceptions of post-middle-age aging, we hope that continuous studies on perception of aging will help late middle-aged adults prepare for their aging more effectively. Lastly, we have suggestions in conclusion.

Keyword : Aging, Aging perception, middle age, late middle age, retirement.

내면아이치료의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이 윤재*

내면아이치료연구소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료하는 내면아이치료의 최근 임상적 적용과 그 치료 효과에 대한 내면아이치료의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20년 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내면아이치료 관련 논문 13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들은 청소년부터 60대까지로 나타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 주제는 대인관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중독 순으로 주로 관계 문제에 나타났다. 연구 방법에 따른 경향을 살펴보면 총 13편 중 치료연구가 11편으로 비치료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치료연구 중에서도 복수사례 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수사례 연구 중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한 혼합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내면아이치료 연구들이 가지는 임상적 의의를 탐색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어린 시절의 상처, 내면아이, 내면아이치료, 연구 동향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윤재, 내면아이치료연구소 부소장,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용산파크타워 103동 1006호 내면아이치료연구소
Tel : 070-7425-0496, E-mail : vic0403@naver.com

어린 시절의 외상과 학대는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할 수 없기에 자존감을 발달시키는 일이 불가능해지며, 어른으로서의 삶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Bradshaw, 2004). 또한, 성인이 된 후에도, 외로움, 불안, 우울증, 부부 사이의 불화, 충동적인 집착 등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Missildine, 2006). 따라서 성인이 된 후에도 원인 모를 우울감, 분노를 느끼거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어렸을 때 겪었던 상처를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그때의 자신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오제은, 2001; Miller, 2019). 그렇기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받은 어린 시절에 대해 알아차리고,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 '내면아이'라는 단어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낯선 단어였다. 2000년대에 들어 처음으로 '내면아이치료'를 주제로 연구(오제은, 2001)가 발표되면서, 국내에 내면아이치료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내면아이'를 주제로 한 도서 뿐 아니라, 대중가요 제목 안에서도 '내면아이' 또는 'inner child'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이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K-POP의 선두주자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뷔가 내놓은 솔로곡 타이틀인 'Inner Child'는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힘든 시간을 달려왔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 세계의 팬들을 위로하는 곳이 되었다(매일신문, 2020).

'내면아이'란 우리의 인격 중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약한 존재이며, 우리의 인격 중에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의 내면 안에 어린아이로 사는 모습을 말한다(Paul, 2013). 또한, '내면아이'는 한 개인의 정신 속에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재하는 아이의 모습이며, 어린 시절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용어로서, 한 개인의 어린 시절부터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이다(Bradshaw, 2004). 우리의 어린 시절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생활 가운데 감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Missildine, 2006). 사실, '내면아이'의 개념은 2000년 동안 인류문화의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해 왔으며, 영성 수련을 하는 고대 수도원에서 상처받은 아이 또는 어린아이인 자신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대화하도록 가르쳤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개념이기도 하다(Whitfield, 1997). 어린 시절 상처치유와 관련하여,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Freud는 상담사가 내담자의 새로운 부모 역할이 되어주는 것이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하는 핵심방법이라고 제시하며,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미해결과제를 상담사에게 전이시키도록 하지만, 상담사가 내담자를 치료하기 위해 도운 내용이 결정적이고 중요할수록, 내담자는 더욱 상담사에게 의존하게 되므로, 시간과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Freud의 치료적 접근은 한계성이 있다(Bradshaw, 2004). 이에 반해, Bradshaw의 내면아이치료에 있어 진정한 의미의 치료는 내담자 스스로가 성숙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아이를 직접 돌보고 치료하도록 돋는 데 있다(Bradshaw, 2004). 따라서, 내면아이치료가 내담자 개인의 치유와 성장을 이루며, 강력하고 결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에서 타 심리치료와 차별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오제은, 2005).

내면아이치료는 성인으로서 내면아이와 연결하여 보살피고 안심시키는 명상(Mindfulness)이나, 멘탈 이미지(Mental Image)를 비롯하여(Siegel, 2007; Gilbert & Irons, 2004; Hackmann & Holmes, 2004) 수십년 동안 다양한 치료 및 상담적 심상작업(Counseling Imagery Activities)이 개발되어져 왔다(Taylor, 1991; Thich, 2010).

이와 같이, 어린 시절 상처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치료기법인 내면아이치료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면아이치료의 국내 연구 동향에 대해 보여주는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선행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학문연구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유혜림, 민인식, 2018). 이 과정을 통해,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성 및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의 다각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표된 내면아이치료 연구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의 다양한 문제들을 치료해 나갈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밝히는 작업은 중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내면아이치료가 임상적으로 어떻게 발전, 적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 치료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내면아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내면아이치료 연구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내면아이치료 연구 대상자의 특성별 동향을 분석한다. 둘째, 국내 내면아이치료의 연구주제별 동향을 분석한다. 셋째, 국내 내면아이치료의 연구방법별 동향을 분석한다.

방 법

본 연구에서는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4U),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지식 베이스(DBpia)를 통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한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발행 논문들을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검색어는 내면아이, 내면아이치료, 어린 시절 상처를 주요어로 논문을 검색하였다.

선정된 논문 중에서 논문 제목에 내면아이가 포함된 논문은 13편이다. 국내 내면아이치료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질문과 관련하여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에 따라 복수사례 연구, 단일 사례 연구, 문헌연구로 분류하여 살펴보자 한다.

합되더라도 내면아이치료와 무관한 내용의 논문과 학위논문과 동일한 학술지 논문은 연구대상 논문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최종 선정한 논문은 학위논문 4편, 학술지 9편, 총 13편으로,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주제,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내면아이치료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진환(2008)이 사용한 분석틀을 사용하였는데, 이 분석틀은 치료연구와 비치료연구로 구분한 뒤 치료연구를 성과, 과정, 사례 연구로, 비치료연구를 경험, 문헌연구로 세분화한다. 김현수, 노미화와 조성봉(2018)은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고 명칭이 주는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비치료연구에서는 서진환(2008)의 유목을 그대로 사용하되, 치료 연구를 성과, 과정, 사례 연구로 분류하는 대신, 복수사례(2개 이상의 사례를 가진 연구) 대 단일사례 연구로 이분하고, 이를 다시 양적분석, 질적분석, 혼합분석으로 삼분한 유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현수, 노미화와 조성봉(2018)의 유목을 사용하여 분류작업을 진행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내면아이치료 관련 한국 논문은 13편이다. 국내 내면아이치료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질문과 관련하여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에 따라 복수사례 연구, 단일 사례 연구, 문헌연구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분류

국내 내면아이치료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질문과 관련하여, 문헌연구 2편을 제외한 11편의 논문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분류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분류

저자(연도)	참가방식	대상자수	대상자 성별	대상자 특성
1 오제은(2009)	집단	6명	남성/여성	20대-40대 성인
2 신차선(2010)	집단	18명	남성/여성	30대-60대 성인 중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은 자
3 주보람(2012)	집단	199명	남성/여성	20세 이상 성인
4 이동천(2014)	집단	150명	남성/여성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
5 박영현, 박승민 (2015)	집단	6명	남성/여성	30대-50대 성인 중 기혼자
6 안지현, 이동천, 권영란(2015)	집단	55명	남성/여성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
7 박혜리(2015)	집단	30명	남성/여성	고등학생 1, 2학년
8 유숙경, 이경원 (2020)	집단	20명	남성	30세-50세 성인 중 교정시설 수감중인 마약중독자
9 이진경, 황경애 (2020)	개인	1명	여성	20대 성인 개인
10 황경애(2020)	개인	1명	여성	50대 성인 개인
11 박진수, 최광현 (2020)	부부	1쌍	남성/여성	부부

표 1을 살펴보면 논문 11편 중 연구대상을 남성과 여성은 같이 연구한 논문은 8편, 여성만을 연구한 논문은 2편으로 나타났고,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1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논문은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1편, 부부를 대상으로 한 논문도 1편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또한, 아래 표1에서 살펴보면 11년간의 연구에서 초기에는 주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주제에 따른 분류

국내 내면아이치료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질문과 관련하여 연구 주제에 따른 분류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주제에 따른 분류

대인관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중독	목회상담	자아강도	불안/우울
3편	3편	2편	2편	1편	1편	1편

총 13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가 3편, 부부관계가 3편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자녀관계가 2편, 중독 2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목회상담, 자아강도, 불안, 우울 등의 주제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

내면아이치료 복수사례 연구

연구방법에 있어서 복수사례 연구로 분류되는 내면아이치료는 총 8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연구들은 아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복수사례연구로

표 3. 내면아이치료 복수사례 연구

저자(연도)	연구 방법	대상자	프로그램	결과(효과)
1 오제은 (2009)	질적	6명 (성인 대상)	집단상담: 영성과 내면아이치유 (3박 4일 45시간)	상처 경험의 지속적 반복과 재생산되는 고통, 내면아이 직면의 경험, 자유로운 내면과 변화된 관계, 실존적 삶의 태도 와 관계의 내면 충만함
2 신차선 (2010)	혼합	18명 (실험군 12명, 대조군 6명)	한국형 내면아이 치유프로그램 (매주 1회기 10회기)	자기수용에 긍정적인 영향, 대인관계 향상,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3 주보람 (2012)	혼합	199명 (실험군 147명, 대조군 52명)	집단상담: 영성과 내면아이 치유 (3박 4일 45시간)	자기개념 수준의 유의미한 향상, 자아 강도 향상, 참가자의 종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향상
4 이동천 (2014)	혼합	150명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실험군 76명, 대조군 74명)	내면아이치료와 비폭력 대화를 접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매주 1회기 90분 6회기)	부모 효능감 향상, 부모-자녀 의사소통 (개방적 의사소통 유의한 차이 없음: 폐쇄적 의사소통 유의한 차이)
5 박영현, 박승민 (2015)	질적	6명 (기혼자 대상)	집단상담: 영성과 내면아이치유 (3박 4일 45시간)	배우자에 대한 실존적 이해가 부부가 서 로 존재로 만나는 참만남을 경험하게 됨
6 안지현, 이동천, 권영란 (2015)	양적	55명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실험군 27명, 대조군 28명)	내면아이상담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매주 1회기 90분 6회기)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향상, 부모 효능감 향상,
7 박혜리 (2015)	혼합	30명 (고등학생 1, 2학년 대상: 실험군 15명, 대조군 15명)	만화-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내면아이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8회기)	불안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짐,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짐, 정체성/사 회성에 도움이 됨
8 유숙경, 이경원 (2020)	혼합	20명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 사용자: 실험군 10명, 대조군 10명)	내면아이 치유 프로그램 (매주 2회기 3시간 14회기)	삶의 적극적 수용으로의 변화, 긍정 정 서의 강화, 부정 정서의 저하, 우울 저 하, 단약 의지의 변화

분류된 8편 모두 구조화된 집단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그 중 5편은 혼합연구가, 2편은 질적연구가, 2편은 질적연구가, 나머지 1편은 양적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면아이치료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 상처치유 경험에 부모 관계, 형제 관계 등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 재구성에 있어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오제은, 2009)는 연구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오제은(2009)은 내면아이치료 참가자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부정적 부분으로 인해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여러 명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은 어른이 되어서도 성격 형성 및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으로 기능하게 되나, 내면아이치료 후, 자신의 관계 및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를 재구성하게 되어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내면아이치료 집단상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내면아이치료(어린 시절 상처치유) 경험이 커플 관계치료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회복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박영현, 박승민, 2015)는 연구결과가 있다. 주보람(2012)은 내면아이치료 집단상담 참석자를 통해 참가자들의 자기개념 및 자아 강도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집단상담을 경험한 통제집단이 실험집단보다 자기개념 및 자아 강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내면아이상담과 비폭력 대화를 함께 적용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효능감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이동천, 2014)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안지현, 이동천과 권영란(2015)은 부모의 어린 시절 상처치유를 목적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내면아이상담을 활용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와 부모 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검증하였다.

이 외에도 고교생을 대상으로 만화-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내면아이치료 집단상담 실시를 통해 불

안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박혜리, 2016)에서는 집단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 고교생들이 불안과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결과를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불안 및 우울과 관련된 정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사회적 관계에 대해 인식하여 표현하게 되었으며, 참여자의 반응이 부정적인 양상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결과가 있다. 신차선(2010)은 한국형 내면아이치유 프로그램을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개발하여 연구한 결과, 내면아이치료가 중독치료에 있어 자기수용에 긍정적인 영향, 대인관계 향상,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등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유숙경과 이경원(2020)은 마약 사용자 중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면아이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혼합연구를 통해, 삶의 적극적 수용으로의 변화, 긍정 정서의 강화, 부정 정서의 저하, 우울 저하, 단약 의지의 변화 등 중독자들의 회복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내면아이치료 단일사례 연구

연구방법에 있어서 단일사례 연구로 분류되는 내면아이치료는 총 3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연구들은 아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진경과 황경애(2020)는 부모의 폭력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자기 비난을 호소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내면아이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결과, 참여자는 '내면아이상담'을 통해 자신의 내면 아이들과 안전한 접촉을 하고 미해결된 핵심감정의 수용, 증상에 대한 통제력 회복, 자기표현,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내면아이상담'이 부모의 폭력으로 고통 받는 참여자의 변화와 성장에 효과적인 개입법이 됨은 물론 대인관계에까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황경애(2020)는 내면아이의 상처로 인해 대인관계에 있어 위축감을 느끼는 5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사례 연구를 하였다.

표 4. 내면아이치료 단일사례 연구

저자(연도)	연구방법	대상자	프로그램	결과
1 이진경, 황경애 (2020)	질적	1명 (20대 여성)	개인 상담 (21회기)	미해결된 핵심감정의 수용, 증상에 대한 통제력 회복, 자기표현,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
2 황경애 (2020)	질적	1명 (50대 여성)	개인 상담 (10회기)	대인관계 위축감의 고통을 느끼게 된 배경 자각, 긍정적 자원의 존재 자각, 자존감 회복, 대인관계 위축감 감소
3 박진수, 최광현 (2020)	질적	1쌍 (20대 부부)	부부 상담 (19회기)	트라우마 극복, 상처받은 내면아이 이야기의 재구성, 부부 상호 간 연결

연구에 의하면 어린 시절 받은 내면아이의 상처를 통찰하고 현재 50대인 자신이 자기 내면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등 사랑 많은 내면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을 익힘으로써 내담자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과거의 상처에 고착되어 대인관계 위축감을 가졌던 모습에서 탈피하여 자기를 돌보는 어른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박진수와 최광현(2020)은 20대 부부를 대상으로 인형 치료를 이용하여 내면아이치료를 진행하였는데, 부부의 어린 시절의 상처들에 대한 무의식적 역동을 통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 내면아이 인형을 통해 시각화함으로써 부부에게 가족체계적으로 자신과 배우자를 이해하고, 어린 시절 내면아이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내면아이치료 문헌연구

연구방법에 있어서 내면아이치료 문헌연구로 분류되는 내면아이치료는 총 2편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연구들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오제은(2001)은 내면아이치료의 기독교와 목회상담학적인 의미를 연구하였는데, 내면아이의 개념 및 내면아이치료 방법에 대해 언급하며 진정한 치유는 목회자나 상담가의 치유경험이 중요함에 대해 말하였다. 또한, 오제은(2005)은 이마고 커플관계치료와 내면아이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부부치료에 대한 연구에서 '상대 배우자의 치료적 역할이 중심'이 된 치료 접근보다 '배우자 각자가 치료중심'이 되어 각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 받은 내면아이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표 5. 내면아이치료 문헌연구

저자(연도)	결과
1 오제은 (2001)	진정한 치유는 목회자나 상담가의 치유경험이 중요함
2 오제은 (2005)	부부관계 치료에 있어서 배우자 각자로 하여금 자신의 어린 시절의 상처, 내면아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 단계에 필요했던 '발전적이며 의존적인 욕구들이 거절된 것을 슬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형태인 '배우자 각자가 치료중심'이 된 치료적 접근이 어린 시절 상처의 치료에 더 효과적임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내면아이치료가 임상적으로 어떻게 발전, 적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 치료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내면아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내면아이치료 연구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에 따른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의 내면아이 치료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부터 60대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연구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편으로 대부분 성인집단을 위주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같은 동향은 내면아이치료가 그 특성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에 더욱 적합하다고 인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혜리, 2016)에서 고등학생들이 불안과 우울 수준이 낮아지고 정체성 및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한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료개입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또한, 중고등학생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동천, 2014; 안지현 외, 2015)는 괄목할 만하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상호작용이나 관계문제에 대해 더욱 확장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편, 연구 대상자는 남성보다 주로 여성인 많았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건으로 나타나 남성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연구주제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면, 대인관계와 부부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자녀 관계와 중독을 주제로 한 연구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자아강도, 목회상담, 우울에 대한 연구결과도 있다. 내면아이치료 집단상담 및 내면아이치료를 적용한 개인 및 부부상담사례를 연구한 결과,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 재구성에 있어 영향을 끼치며,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향상과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이다. 가족 또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이 모두 상담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향상과 회복에 영향을 끼치며, 내면아이치료가 다양한 관계의 향상과 회복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라 볼 수 있겠다. 특히, 내면아이치료 프로그램이 알코올 중독자 대상 연구(신차선, 2010) 및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중독자들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유숙경 외, 2020)가 있었는데,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내면아이치료를 통해 대상자들이 자신을 적극적 수용하는 태도로 변화하고, 긍정 정서의 강화를 통해 우울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단약 의지에 대한 변화를 알 수 있는 연구였다. 최근 중독치료에 대한 연구결과로는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한 상담기법이 중독자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박상규, 2018) 및 인지행동치료, 동기 강화 상담, 유관관리, 공동체 강화접근이 마약중독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김주은, 2020) 등이 있는데, 내면아이치료 또한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들을 돋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료에 적용됨으로써 중독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연구라 볼 수 있겠다.

셋째,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김현수, 노미화와 조성봉(2018)의 유목에 따라 분류한 결과 총 13편 중 치료연구가 11편으로 비치료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었다. 치료연구 중에서도 복수사례 연구가 8편으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사례 연구 중에서도 질적연

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한 혼합연구가 5편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객관성과 심층적 부분을 함께 다룬 부분은 의미 있는 연구라 하겠다. 반면, 단일사례 연구가 총 3편으로 적은 수이긴 하나 모두 2020년 이후 연구라는 점에서 최근의 연구 동향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치료연구에서 개입방법을 살펴보면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으로 나눌 수 있었다.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모두 각 증상이나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료연구에 비해 비치료연구인 문헌연구가 2편으로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치료연구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의 내면아이치료에 대한 연구 동향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임상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한국에서의 내면아이치료에 관한 초창기 연구에서는 복수사례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내면아이치료가 개인이나 부부를 대상으로 한 단일사례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최근 내면아이치료를 통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내면아이치료가 부모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자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때, 그들의 부모의 원 가족으로부터 비롯된 미해결과제(어린 시절 상처)를 함께 다루지 않은 채로, 자녀 문제만을 따로 접근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연구(오제은, 김혜진, 2018)에서도 언급된 점이다. 셋째, 내면아이치료를 통한 어린 시절 상처 치유 경험이 커플 관계의 회복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오제은, 2005; 박영현 외, 2015; 박진수 외, 2020)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 국외에서도 내면아이 대화법(ID-CAM)을 개발하여 개인 및 커플 치료에 적용했을 때 치료를 더 촉진할 수 있어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결과(Androutsopoulou & Viou, 2019)와도 동일하다. 따라서 커플 치료 시 파트너에게 어린 시절 상처 경험이 드러날 경우, 상담사는 내담자 커플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내면아이치료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상담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내면아이치료 경험에 관한 더 많은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내담자들에게 진정한 치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담사 자신이 먼저 어린 시절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발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오제은, 2001). 이를 통해, 상담자 자신의 내면아이치료 경험에 상담자 자신 및 가족관계 더 나아가 임상 장면에서 내담자를 대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상담자 성장에 관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둘째, 내면아이치료를 통한 알코올 및 마약 중독 프로그램이 중독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를 바탕으로 그 외 더 다양한 중독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중독의 핵심 요소는 상처받은 내면아이라는 점(Bradshaw, 2004)에서, 중독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내면아이치료를 활용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대상자 중 아버지는 소수가 포함되었기에,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학령기 아동이나 중학생의 아버지-자녀 관계에 있어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하수정, 박성연, 2011; 고영규, 2018; 정수진, 이영선, 2017; 이미령, 2018). 넷째, 사회적으로 고령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년을 대상으로 한 내면아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내면아이치료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만을 살펴본 바, 국내와 국외 연구에 대한 동향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영규 (2018).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사회성과 창의성향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학연구*, 25(1), 101-129.
- 김주은 (2020). 마약중독의 근거기반치료.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2), 186-201.
- 김현수, 노미화, 조성봉 (2018).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분석을 통한 가족치료 연구의 동향분석: 임상치료연구를 중심으로. *가족과가족치료*, 26(4), 729-760.
- 매일신문 (2020). 방탄소년단 뷔 솔로곡 'Inner Child' 팬들에게 전하는 감동 메시지. <http://news.imaeil.com/Entertainments/2020022410013569691>에서 2020. 02. 24. 인출.
- 박상규 (2018). 중독자의 회복유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적 상담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2), 293-326.
- 박영현, 박승민 (2015). 어린 시절 상처 치유 경험과 부부관계 변화과정 연구 -내면아이치료 집단상담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가족과가족치료*, 23(1), 239-271.
- 박진수, 최광현 (2020). 상처 입은 내면아이 인형 치료를 적용한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1(1), 97-124.
- 박혜리 (2016). 만화-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내면아이치료 집단 상담이 고교생의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충실행복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진환 (2008).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연구경향 분석 연구-창간호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가족과가족치료*, 16(2), 1-30.
- 신차선 (2010).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한국형 내면아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자기수용, 대인관계 및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지현, 이동천, 권영란 (2015). 내면아이상담을 활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와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5), 2719-2731.
- 오제은 (2001). 내면아이치료와 목회상담.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세미나 자료집*, 3-44, 천안: 한국실천신학회.
- 오제은 (2005). 가족상담: 커플관계 치료에 있어서 '어린시절의 상처'치료의 중요성: 이마고 커플관계치료와 내면아이치료모델을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6(3), 1055-1070.
- 오제은 (2009). 내면아이 치료와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 재구성 경험의 해석학적 연구: 실존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의. *상담학연구*, 10(3), 1305-1325.
- 오제은, 김혜진 (2018). *내면부모자녀체계치료: 동형성-상담사로서의 자기치료와 성장*. 서울: ICFR.
- 유숙경, 이경원 (2020).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 사용자 회복을 위한 내면아이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혼합연구방법론 접근. *교정연구*, 30(2), 31-68.
- 유혜림, 민인식 (2018). 한국 사회복지학의 최근 연구경향: 연관규칙 분석의 활용. *보건사회연구*, 38(2), 555-588.
- 이동천 (2014). 내면아이와 비폭력대화를 접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령 (2018).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경, 황경애 (2020). 부모의 폭력으로 인한 자기 비난을 호소하는 여대생의 내면아이상담 사례연구. *부부가족상담연구*, 1(1), 33-48.
- 정수진, 이영선 (2017).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자녀관계가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고립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5(1), 73-94.
- 주보람 (2012). 내면아이치료 집단상담이 자기개념 및 자아강도에 미치는 효과.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수정, 박성연 (2011). 아버지의 양육태도, 학령기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내적동기가 여아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1), 133-149.
- 황경애 (2020). 내면아이상처로 대인관계의 위축감을 갖는 50대 주부를 위한 통합적 상담사례 연구. *코칭연구*, 13(1), 91-112.
- Androutsopoulou, A., Viou, Maria. (2019). The guided imagery therapy activity "Inner dialogue-child adult meeting"(ID-CAM): Step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Creativity in Mental Health*, 14(3), 343 - 356.
- Bradshaw, J. (2004).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Homecoming: Reclaiming and championing your inner child*].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0년 출판).
- Bradshaw, J. (2006). 가족: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여행 [*The family: A new way of creating solid self-esteem*].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0년 출판).
- Gilbert, P., & Irons, C. (2004). A pilot exploration of the use of compassionate images in a group of self-critical people. *Memory*, 12(4), 507 - 516.
- Hackmann, A., & Holmes, E. A. (2004). Reflecting on imagery: A clinical perspective and overview of the special issue of memory on mental imagery and memory in psychopathology. *Memory*, 12(4), 389 - 402.
- Miller, A. (2019). 천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드라마 [Das drama des begabten kindes und die suche nach dem wahren selbst: eine um-und fortschreibung]. (노선정 역). 서울: 양철북(원전은 2009년 출판).
- Missildine, W. H. (2006). 몸에 벤 어린시절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이종범, 이석규 공역). 서울: 카톨릭출판사(원전은 1963년 출판).
- Paul, M. (2013). 내면아이의 상처 치유하기 [Inner bonding]. (정은아 역). 서울: 소울메이트 (원전은 1992년 출판).
- Siegel, D. J. (2007). *The mindful brain: Reflection and attunement in the cultivation of well-being*. New York: Norton.
- Taylor, C. (1991). *The inner child workbook*. Los Angeles: Tarcher.
- Thich, N. H. (2010). *Reconciliation: Healing the inner child*. Berkeley: Parallax Press.
- Whitfield, C. L. (1997). 잃어버린 자아의 발견과 치유 [Healing the child within]. (김용교, 이인출 공역). 서울: 도서출판 글샘(원전은 1987년 출판).

원고 접수일 : 2020년 09월 14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1년 05월 16일

게재 확정일 : 2021년 05월 29일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Inner Child Therapy in South Korea

Lee, Yoon-Jae

Inner Child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search trends on inner child therapy in the nation based on the recent clinical applications of inner child therapy, which is to treat childhood wounds from parents, and their therapeutic effects.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d 13 papers on inner child therapy published in the nation from 2001~2020. The studies included in the analysis targeted various age groups from adolescents to the elderly in their sixties. The most popular research topic was interpersonal relationship, which was followed by marital relations, parent-child relations, and addiction, in that order. These studies mainly addressed relationship issues. Their research trends were examined according to methodology. Of a total of 13 papers, 11 were on therapeutic research, which was conducted relatively actively compared with non-therapeutic research. Most of the therapeutic research covered multiple cases. Many of this research mixed qualitative study with quantitative stud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examined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research on inner child therapy and proposed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Keyword : Wounds of Childhood, Inner Child, Inner Child Therapy, Trends of Research

「부부가족상담연구」 발간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부가족상담연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명칭) 본 학술지의 명칭은 '부부가족상담연구(Korean Journal of Couple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라 한다.

제3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간(발간 시기: 5월 30일, 10월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하에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4조(게재원칙) 본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단 학위논문의 경우 전문 또는 일부를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5조(게재논문 종류)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투고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게재할 모든 논문은 심사규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투고자격) 본 학술지에 일반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가족상담 관련 분야 학과 교수 및 상담관련분야의 석사과정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7조(투고방법)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 학술지의 게재 원고 작성 양식에 부합되도록 작성된 논문을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JAMS: 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투고자의 연구윤리)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자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 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투고자가 별쇄본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부가족상담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1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에서 선정된 편집위원장 1인과 부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10명 내외의 편집위원,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실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의는 매년 2회로 3월과 8월에 개최한다.

제14조(심사위원회 구성) 논문의 심사를 위해 상임 심사위원회를 두며, 이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편집 위원장이 승인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5조(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 대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박사 및 대학교수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 또는 의결을 통해 선정된다.

제16조(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논문심사 의견서 양식 등을 송부한다.

제 17조(심사기준)

- ① 논문의 심사기준은 소정 양식(논문심사의견서)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② 심사결과는 심사기준에 의하여 아래 네 등급으로 구분된다.
 1.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며, 투고규정을 완벽히 이행한 논문
 2. 수정후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투고규정의 이행이 부족한 논문
 3. 수정후 재심사: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논문 내용에 쟁점이 있는 논문. 수정 후 심사절차를 다시 거친다.
 4. 게재 불가: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 ③ 심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재가를 얻은 후 학술지에 수록된다.

제18조(심사 방법 및 절차)

- ① (접수) 저자는 논문원고 파일을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JAMS: 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하며,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대장에 투고논문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 ② (심사)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 ③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논문심사 의견서에 "게재가/수정후 게재가/수정후 재심사/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 사항을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④ (게재 여부 최종 판정)
 1. 수정후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2. '수정후 재심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친다. 저자와 심사위원 간에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중재하여 판정한다. 단, 충분한 수정기간을 두기 위하여 최소 2개월 이후 수정논문을 재투고하여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3.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으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본 학술지에 재투고 할 수 없다.

4. 게재 여부 판정에 대한 상세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5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8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12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13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14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5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6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8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5. 논문에 대한 최종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에 따른 평가 점수와 심사의견 및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6.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7. "수정후 게재가" 종합판정을 받은 논문 중 "게재불가"를 포함하는 논문에 한해, 재심사에서 두 번 연속 게재불가를 받은 논문(총 3회의 게재불가를 받은)에 대해서는 이미 두 편의 "게재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를 중단하고 최종판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⑤ (논문의 수정)

1. 저자는 논문심사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논문과 논문수정답변서를 편집 위원에게 송부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수정/보완된 논문의 수정내용 확인을 의뢰하며 재심사의견서와 수정/보완된 논문 1부, 저자의 논문수정답변서를 송부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가 완료되면 재심사의견서에 게재가/게재불가 여부를 적어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4. 심사는 최대 3심까지 진행한다. 1차심사 / 2차심사(재심사) / 3차심사(재심사, 최종). 3차 심

사에서도 '게재가'로 판정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⑥ (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논문편집에 필 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통보서, 논문작성요령을 저자에게 송부한다.
- ⑦ 예고된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은 논문심사 독촉서를 심사위원에게 보내 협조를 요청한다.
- ⑧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이유 및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19조(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20조(게재예정증명서)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저작권)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단, 논문의 투고 시에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교 신저자에게 확인한다.

제22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부가족상담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근거) 본 위원회는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회칙 제3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제4조(위촉)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 하에 위촉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탄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선정)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부부가족상담전문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학술연구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2. 세부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각 영역에 적정 인원수를 선정한다.

제6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부부가족상담연구』의 체제, 발간 횟수,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 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편집회의

제7조(회의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의 유고 또는 위임 시에 부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회의성립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위원 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 위임 시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된 의결권은 회의 의장이 가진다.
3. 전자 통신이나 전송으로 1항의 정족수에 해당하는 편집위원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경우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9조(심사 기준)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의 타당성
2. 연구 필요 및 목적의 명료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내용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6. 투고규정 준수정도
7. 논문체제의 적합성

제10조(심사 위원의 위촉) 편집 위원회에서는 게재 희망 논문의 성격과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심사 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방법 및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 논문의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의 종합 판정을 내린다.
3. 심사결과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구체적인 평가는 <붙임 표 1>의 원칙에 의거한다.
4. 논문 심사 위원은 논문 내용에 관하여 수정, 보완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게재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5.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는 <붙임 표2>의 원칙에 의거한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논문작성지침을 충실히 따랐는지를 사후검수를 할 수 있다.

제5장 논문 투고 및 게재

제12조(투고자격)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공동 연구의 경우 적어도 1인은 정회원 이어야 한다.

제13조(투고원고의 종류) 투고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 논문이어야 한다.

제14조(학위논문투고) 학위논문 투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위논문의 경우,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한다. 예시) 연구는 저자명(연도)의 OO대학교 석(박)사학위논문 '제목'을(를) 요약(or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3.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투고 금지) 본 학회에 논문을 공식 투고하여 심사과정 중에 있거나, 심사완료되어 논문이 정식게재된 경우, 동일 논문 또는 내용상 상당한 중첩이 있는 유사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투고해서는 안된다. 단, 정식게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투고/게재 철회요청서를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다른 학회지에 투고/게재할 수 있다.

제16조(게재제한) 한 호에 동일저자(주저자, 공동저자 포함)에 의한 논문을 최대 2편까지 허용하나, 게재되는 논문 2편 중 한 편에서 반드시 주저자여야 한다.

제17조(원고의 사용언어) 모든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논문원고의 경우 영어도 가능하다.

제18조(원고작성 및 제출) 원고는 반드시 "부부가족상담연구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원고는 게재신청서, 연구윤리확약 및 저작권 이전 동의서, 연구윤리교육 이수증과 함께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JAMS: 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으로 제출한다.

제19조(학회지 발간 및 접수) 학회지는 5월(1호)과 10월(2호) 연 2회 발간하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또한 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자로 한다. 그러나 원고의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발송된 원고가 기한 내에 회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접수를 무효로 한다.

제20조(원고의 내용) 제출된 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인용이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21조(저작권) 교신저자가 인쇄용 최종원고를 제출하는 것은 본 학회지에 논문의 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명시하지 않아도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과 전송권을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귀속시키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제23조(별쇄본) 논문의 별쇄본은 투고자가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제24조(접수거부) 본 규정이나 원고작성 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부칙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부부가족상담연구」 논문 심사 판정 체제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심사 결과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5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8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12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13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14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5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6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8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붙임2>

「부부가족상담연구」 투고자 이의 신청 처리 체제	
이의 신청 범위 및 방법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 신청 1차 처리 방법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서를 해당 심사자에게 전달하며,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심사 결과 수정 실시.
이의 신청 최종 처리 방법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 이유와 해당 심사자의 심사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 신청이 합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 교체 후 재심사 의뢰.

「부부가족상담연구」 원고제출 및 작성요령

1.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논문 및 사례연구이다. 상세한 것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홈페이지](#)의 학회지 투고안내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본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투고자는 수시로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편집위원회](#)로 논문원고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 논문 작성은 HWP(한글)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논문 작성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상세사항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홈페이지](#)의 학회지 투고안내를 참조하기 바란다.
 - ① 원고제출시 1단. 게재확정 후(제목 및 초록은 1단 편집, 본문은 2단 편집으로 제출).
 - ② 편집용지: A4규격(210 × 297 mm) 세로용지
 - ③ 용지 여백 : 위쪽 35 mm, 아래쪽 35 mm, 좌측 30 mm, 우측 30 mm,
머리말 12 mm, 꼬리말 13 mm
용지 방향: 좁게
 - ④ 문단모양: 문단 시작은 들여쓰기 8, 줄 간격 160%, 정평 95%, 자간 -10
 - ⑤ 마침표 다음: 한 칸 띄울 것(두 칸이 아님)
 - ⑥ 논문 제목: 신명조 20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40
 - ⑦ 저자: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20
 - ⑧ 소속: 신명조 10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10
 - ⑨ 국문초록 본문: (두 줄 띄우고 시작)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첫 칸을 띄우지 않고 시작,
여백(왼쪽 30, 오른쪽 30)
 - ⑩ 주요어: 중고딕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 ⑪ 본문: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문단 시작은 들여쓰기 8
 - ⑫ 본문제목 1단계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부록'):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본문제목 2단계 : 중고딕 11호, 진하게, 양쪽 정렬
본문제목 3단계 : 신명조 10호, 양쪽 정렬, 들여쓰기 8
 - ⑬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내어쓰기 30
 - ⑭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5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위 40
 - ⑮ 영문초록 저자: 신명조 10호, 가운데 정렬, 문단위 20
 - ⑯ 영문초록 소속: 신명조 9호, 가운데 정렬, 문단위 10
 - ⑰ 영문초록 본문: (두 줄 띄우고 시작)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첫 칸을 띄우지 않고 시작,
여백(왼쪽 30, 오른쪽 30)
 - ⑲ 영문초록 key word: 중고딕 9호, 기울기, 보통모양, 양쪽 정렬, 문단위 15

⑯ 각주, 저자 주, 표 및 그림의 주: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주(종고딕 9호)라고 시작하고, 붙여서 마침표 찍고, 한 칸 띄어서 내용은 신명조로 작성

⑰ 표제목, 그림제목: 종고딕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표 작성의 줄긋기: 표에 사용되는 줄은 명확성을 높여 줄 경우에만 사용하며 세로 줄은 사용하지 말고 가로 줄만 사용, 표의 맨 위와 아래 가로선은 굵은 선(0.25mm)으로 쓰고 안쪽 가로선은 가는 선(0.12 mm)을 사용

4. 논문의 모든 내용, 특히 인용문, 그림, 표 등은 반드시 저작권법 및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에서 제정한 연구진실성심사운영세칙에 위배되지 않게 기술해야 한다.

5. 논문제출 시에 게재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논문 및 저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며 논문의 모든 페이지는 1부터 연속적 숫자가 부여되도록 한다. 저자명은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 한하며 논문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학위논문투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학위논문의 경우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한다(신청서 및 논문제목 각주).
-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상담관련등재학회지: 상담관련 논문 3편 이상을 참고 문헌으로 인용한다.

7. 투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사실을 별도의 양식으로 논문에 표시할 수 있다.

8. 제출된 논문은 학회지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키로 한 논문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9. 제출 논문의 분량은 A4 용지 15매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경험적 연구논문의 형식은 서론(제목 없이), 방법, 결과, 논의 그리고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한 초록은 서론 앞부분에 제시하고, 다른 언어로 작성한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첨가한다.

11.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한다. 동일저자에 의한 일련의 연구인 경우에 한해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논문전체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모든 연구 논문은 120-150 단어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은 APA 규정에 맞게 쓰여야 하고, 국문 및 영문 초록의 하단에 주요어 5개 이내로 표기한다.

13. 그림(figure와 graph)은 동판을 뜰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거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graph의 경우 좌표 값의 명기) 제시한다. 표(table)는 가능한 간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 표의 제목은 표 위에 써 넣는다. 본문에서의 그림과 표의 언급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언급한다(예: 그

림 1에서..., 표 1에서...). 자료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원문에서는 자료수집의 목적 및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적는다.

14. 문헌인용을 본문에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각각 5글자씩 들여 쓰고, 줄간격은 150으로 한다.

나.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 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1) 이 문제에 관하여 조성봉(2018)은

(예 2) 오제은(2016: 15)은..., (2016년도 문헌의 페이지 15)

다.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 해당 면 등을 표시한다. 참고문헌이 여럿일 경우에는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1)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오제은, 2016: 18).

(예 2) 한 연구(오제은, 2009; Haville Handrix, 2004; Rick Brown, 2009)에 의하면...

라. 저자가 1~2인인 경우

괄호안에 제시 ... (천성문, 함경애, 2017), (Haville & Hellen, 2020)

본문속에 참조 ... 천성문과 함경애(2017)는..., Haville과 Hellen(2020)은...

마. 저자가 3인 이상 5인이하의 경우 저자를 모두 표시하되 첫 인용에는 모두 성을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될 때에는 제1저자의 성 뒤에 등(等)을 표기한다.

(1) 첫 번째 인용

괄호안에 제시 ... (천성문, 함경애, 박은아, 2017), (Haville, Hellen, & Handrix, 2020)

본문속에 참조 ... 천성문, 함경애와 박은아(2017)는..., Haville, Hellen과 Handrix(2020)은...

(2) 반복 인용

괄호안에 제시 ... (천성문 외, 2017), (Haville et al., 2020)

본문속에 참조 ... 천성문 등(2017)은..., Haville 등(2020)은...

바. 저자가 6인이상인 경우

(1) 첫 번째 인용

공저자 6인까지 제시하거나 처음 사람만 기재해도 됨(천성문 외, 2017),

(2) 반복 인용

3인이상인 경우와 동일함

15. 참고문헌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저자에 의한 출판물은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2)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韓中日西洋書 순으로 열거한다. 여기에 예시한 이외의 서양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대체로 APA(5ed.) 양식을 따른다.

- 단행본의 경우: 책 이름은 진하게 한다.

이지영 (2015). **영화로 배우는 심리학개론**. 서울: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

오제은 (2009).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수준과 부부관계 적용. **상담학연구**, 10(2), 1217-1228.

- 학위논문의 경우

오소정 (2016). **중년기 위기부부를 위한 이마고 커플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편저 속의 논문의 경우(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밝힐 것)

김이해 (2008). **현대 한국가족 문화와 부부 및 가족상담**. 김유리(편), 111-121.

-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의 경우

오제은 (2009). 이마고 부부관계치료와 세계적 동향.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214-229). 서울: 한국심리학회.

- 신문기사의 경우

동아일보(2001. 9. 23). 사이버 대학 1학기 수강생 10명 중 8명 꼴 재등록. 19면.

- 전자 매체, URL 등 인터넷 간행물의 표기

① 인터넷에서 정보를 인출한 경우 자료 원천의 이름과(혹은) 주소를 적은 후 인출한 날짜의 연월 일을 구분하여 적고 “…에서 인출”이라고 적어 문장을 끝낸다. 반드시, URL과 인출한 날짜를 기입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August 1). APA style for electronic resources.
<http://www.apastyle.org/styleelecref.html>에서 2001. 9. 5 인출.

② 인터넷의 비정기간행물 문서의 경우 날짜가 명기되지 않고 일반 기관에서 게시한 인터넷 문서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었을 때는 그 문서가 들어간 홈페이지(혹은 첫 화면)로 연결될 수 있는 URL을 적어주고 작성 일자가 없음을 “작성일 불명”(영어는 no date를 나타내는 축약어 n.d.로 표기)이라고 명시한다. 문서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그 문서의 제목을 저작자명으로 간주하여 제시한다.

GVU's 8th WWW user survey.(n.d.).

http://www.cc.gatech.edu/gvu/user_surveys/survey-1997-10에서 2000. 8. 8 인출.

④ 기타(온라인 포럼, 토론 및 온라인 상에서 읽은 일간지 기사 등)

매일신문 (2020). 방탄소년단 뷔 솔로곡 'Inner Child' 팬들에게 전하는 감동 메시지. 2020. 02. 24. <http://news.imaeil.com/Entertainments/2020022410013569691>.

3)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 사항

① 책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저자(출판연도), 제목(판), 출판도시: 출판사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McMillan, J. H. (2001). *Classroom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instruction*(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② 편집된 책의 경우 아래의 방식을 따라 표기한다.

Wells, A.S.(1996). African-American students' view of school choice. In Fuller, B., Elmore, R., & Orfield, G.(Eds.). *Who chooses? Who loses? Culture, institutions, and the unequal effects of school choi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단, 여러 사람이 쓴 글을 편집하여 펴낸 책에서 한 논문을 참고하였을 때는 해당 논문의 쪽수도 함께 표기한다.

③ 번역서 혹은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명 뒤에 본문에서 인용한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괄호안에 제시하고 번역서명을 적는다. 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대괄호를 이용하여 원전의 제목을 표기하고 이어서 괄호로 묶어 역자명을 적고 “역 혹은 편역”으로 번역서임을 표시하고 마침표를 할 것. 그리고 번역서의 출판지와 출판사를 적고, 그 뒤에 원전의 출판연도를 괄호를 묶어 제시할 것. 그러나 본문에서는 괄호 안에 원저자명을 적고 원전의 출판연도와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표기할 것.

[예: Rogers, C. R. (1980/2007).]

Rogers, C. R. (2007). 칼 로저스의 사람-중심 상담[A Way of Being].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0년에 출판)

④ 정기간행물의 경우 모든 저자의 이름(출판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시작 페이지-마지막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학술지에 논문이 출판 중에 있는 경우 출판연도 대신 (inpress)로 표기한다. 논문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단행본의 경우도 동일). 단, 정기간행물의 명칭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Diener, Marc J., & Monroe, Joel 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therapeutic alliance in individual psychotherap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8(3), 237-248.

⑤ 연구보고서: 저자(출판연도), 보고서 제목(보고서 번호), 출판도시: 보고서 제출 기관 명 순으로 한다.

가) 대학에서 발간된 보고서

Smith, J.E.(2008). Minority status and schooling.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Hobbes Research Center.

나) 조직이나 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 조직이나 기관명이 저자명이 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⑥ 미출판된 박사(석사)학위논문: 저자(출판연도), 제목, 졸업학교, 지역 순으로 한다.

Adelmann, P.K.(1989). *Emotional labor of employee well-being*(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USA.

⑦ 학술회의나 심포지엄의 자료

가) 출판된 자료: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밝힐 것.

Deci, E.L., & Ryan, R.M.(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rgration in personality. In Dienstbier, R.(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8. Perspectives on motivation(237-28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나) 미출간된 자료

Byun, S.Y., & Kim, K.K.(2007). Cultural activities and student achievement in East Asian countries: An analysis of PISA 2000.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Society, Baltimore, USA.

⑧ 신문기사: 게재면과 출판 연월일을 명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기간행물과 동일하다.

Mayer, C.E.(2005, January 7). Group takes aim at junk-food marketing. *The Washington Post*, pp. E2, E3.

⑨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

National wage data.(2004, April 20). Bureau of Labor Statistics. Retrieved January 19, 2005, from <http://www.bls.gov/bls/blswage.htm#/national>

16. 영어논문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영어논문의 작성 양식은 the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the 6th edition)에 따른다. 논문 분량은 6,000단어 이내(A4 15쪽 내외)로 하며, 초록은 120-150 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부부가족상담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의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 즉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는 본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2장 연구윤리

제5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 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대한 보상
-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실험 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9조(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10조(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 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 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연구 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①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 2.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 3.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12조(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에서 속이기)

- 1.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 2.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 3.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4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 1.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차후 연구에서 같은 절차가 포함된다면 이를 수정해서 설계해야 한다.

제15조(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 1.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 전향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6조(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도 존중한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

제17조 (연구부정행위의 종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 전반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중복게재(자료의 중복사용)·조사방해·부정행위 강요·연구이탈 행위 등을 말한다.

제18조(연구결과 보고)

-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는다.
-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의 제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 때문에 연구자가 과학적 연구보고의 기준을 지킬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9조(표절)

- ①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 ②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의 아이디어, 연구도구 및 한 문장까지 타인의 것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③ 표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동일 저자라도 두 논문에서 연구문제와 연구대상이 동일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 논문의 분석 자료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문제와 연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 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 저자가 된다.

제21조(연구자료의 이중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외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인사 2인 이상과 편집위원 4인 이상을 위촉한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학술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5. 위원회는 확정된 학술윤리위원 명단을 본조사 착수 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6.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학술윤리위원에 대해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수용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4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5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6조(회의)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연구윤리 검증

제27조(부정행위 제보) 제보자는 본회에 구술·서면 및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1.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3.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제29조(예비조사의 주체, 기간 및 내용)

- ① 예비조사는 본회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장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접수일이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30조(예비조사 결과의 처리)

-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를 심의·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해당연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위원회는 예비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③ 본조사 실시를 결정한 예비조사결과는 피조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3.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의혹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그 이유
5. 기타 주요 관련 증거 자료

제31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자는 서면 혹은 구술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시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유지)

1. 원칙적으로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제34조(변론의 권리 및 이의제기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변론 및 이의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변론 및 이의를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 또는 논문명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피조사자의 역할
4. 관련 증거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요 변론내용과 이의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36조(판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승인·확인한 후,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요청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 ① 부정행위를 승인한 판정이 행해지고 재심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적시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연구지원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8조(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본 학술지 홈페이지 공지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3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 후 5년간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행해진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회원가입

* 제공하신 정보는 회원 지원서비스를 위해 사용됩니다.

1. 본인 확인 식별 절차에 이용: 성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2.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 등에 이용: 성명, 휴대폰번호, 자택 주소, E-mail 주소
 3. 회원의 전문성 확인 이용: 학위 관련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회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며 삭제요청시 당사자는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실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 하여 주시고 동의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 및 활동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 절차

- (1) 홈페이지 온라인 가입 [kacfc.or.kr]
- (2) 학회 회원가입 입회비와 가입비 납부 [입금방법: 성명+생년월일 기재]
- (3) 확인 후 회원승인

■ 회원 가입 자격 요건

- (1) 본 학회 창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준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 (2) 학회 평생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의 평생회원 가입 신청서를 안내드립니다.

■ 회비 및 계좌번호

구분		입회비	연회비
전문회원	부부·가족상담 관련 박사학위 소지 또는 한국가족상담협회 수련감독자격 유지자	2만원	5만원
정회원	부부·가족상담 관련 석사학위 소지 또는 한국가족상담협회 1급 자격 유지자	2만원	3만원
준회원	부부·가족상담 관련 학사학위 소지	2만원	2만원

* 처음 가입 하시는 분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동시에 납부해야 회원승인 처리가 됩니다.

* 계좌번호: 국민은행, 231401-04-287068,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 문의처

학회 사무국: E-mail: kacfc2019@gmail.com , TEL: 070-7475-3957